진리 평화 창조

외대학보

발 행 인 안 병 만
편 집 인 겸 주 간 전 태 현
편 집 장 강 민 홍
외대신문사 ☎962-7128, 961-4151
외 대 학 보 ☎961-4152, 961-4183(FAX 겸용)
학생기자실 ☎959-6574, 0335-30-4112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1
449-791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왕산리 산89
인 쇄 인 송 재 봉

창간 1955년 4월11일
등록번호 제 다2 53호

[주간]

THE OE DAE HAGBO

제647호 1995년 9월 12일 (화)
1958년 3월 27일 제3종 우편물(가)급인가

지면안내

3면 (대학보도)
지난학기 전면적인 편집자율권 마찰로 비화된 외대학보 사태의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알아본다.

4면 (학술기획)
한일수교 30년을 맞아 불법적인 한일합방과 일본의 범죄적 행위를 재고찰하고 국제법에 의거하여 대안을 찾아본다.

5면(학술보도)
중국·대만 분쟁의 배경 - 미국과 중국이 동아시아에 대한 서로의 이해가 엇갈리면서 힘겨루기를 하는 가운데 중·미 분쟁은 어느덧 중국과 대만과의 전쟁위협으로 치닫고 있다.

6면(생활문화면)
용인캠퍼스 모현학사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 문제점인 식권문제에 대해 여러각도에서 심층보도한다.

7면(문화면)
세계민속예술제 - '40년 외대, 화려한 전통의 복원'이라는 취지하에 오는 10월 6일 개최됨

8면(사회보도)
5·18 집회 경찰 과잉폭력진압 - 지난 16일 5·18집회에서 경찰은 시민·학생들에게 최루탄을 난사하고 신문기자마저 폭행하는 등 과잉진압을 단행했다.

9면(사회기획)

'평화로 한마음 통일로 한걸음' 민족 최대의 경사인 8·15민족공동행사의 성과와 앞으로의 통일전망을 소개한다.

10면(심층보도)
대학당국에 의해 발표된 이번 교육과정개정안은 전인교육이 아닌 경쟁을 통한 소수 엘리트 양성이라는 본질을 드러내고 있다.

□ 안병만 총장 특별대담

외국학 연구센터…지역학의 메카로 자리잡을 것

교육개혁 비롯한 학교발전 계획 재정비 할 터

누구에게나 그렇겠지만 본교에 있어서 이번 학기는 매우 중요하다. 수업개방에 따른 교육시장개방이 내년부터 전면화되고, 정부는 교육의 세계화를 외치며 5·31 교육개혁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 대학들은 모두 살아남기 위해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지난 학기 의외로 본교는 조용한 듯 보인다. 그러나 교육시장개방에 따른 영향에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에, 새로운 대안 모색이 필요한 시기이다.

본보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변화들에 맞춰 본교가 어떠한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준비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안병만 총장을 직접 만나 들어보았다.

편집자

◇안병만총장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외국학종합연구센터는 올해 착공되며 강사섭외 등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지난 8월 31일(목) 청와대에서 29개 대학총장을 초청한 자리에 참석했다고 알고 있다. 어떤 얘기가 오고갔는가?

"그동안 교육재정 확보 문제를 놓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 그 자리는 그동안의 논란을 정리하고 전국 주요 대학총장들에게 GNP 5%를 교육재정으로 확보하겠다고 선언한 자리였다. 때문에 당장 내년부터 1백억의 교육재정이 대학에 투자될 것이다. 참고로 그 교육재정은 전국 모든 대학에 투자되는 것이 아닌 국책대학으로 선정된 몇개 대학에만 나누어 집중 투자될 것이다."

- 지난 8월 24일(목) 용인캠퍼스 교양관에서 열린 전체 교수회의에서는 교육과정 개정안 이 상정,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번 교육과정개정안의 중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교수들 사이에서의 반응은 어떠한가?

"지금까지의 대학 교육은 사실상 공급자 위주였다. 이번 개정안의 기본 취지는 공급자 위주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벌이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급한 것은 학생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다. 사실 지금은 처음부터 과가 정해지고 반면 자유선택의 기회는 적기 때문에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공부들을 교과과정에서 다 소화해주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위해 학부제 도입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나선다. 때문에 일단 선차적으로 복수전공 기회의 확대와 자유선택 학점의 증대, 실용영어부 개설 등을 이번 교육과정개정안의 중심 내용으로 넣었다. 교수들 사이에서는 일부에서 어학을 줄인다는 것에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으나 전반적으로 이번 개정안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 본교는 오는 97년 대학종합평가(대종평)를 받는다. 여기에 대한 대안은 마련되고 있는가? 대종평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라도 외대발전 5개년 계획안이 성실하게 이행돼야 한다고 본다. 이에 대한 별도의 점검은 되고 있는가?

"외대발전 5개년 실천계획안의 많은 부분이 별무리 없이 실행되고 있다. 시기적으로 늦춰진다거나 하는 문제제기가 들어오기도 하는데, 반면 원래 계획에 없던 것들이 시행되기도 한다. 즉 구체적인 모든 것들이 똑같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총체적으로 5개년 계획안의 틀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대종평은 일종의 자체 평가라 할 수 있는데, 전국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서로를 평가해보자고 제기된 것이다. 대종평은 일종의 체면문제에 속하는 것이기에 특별히 계획을 세우거나 대비하거나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 되는 것이다."

- 외대발전 5개년 계획안에 보면 올해 안에 외국학 종합연구센터를 착공하기로 되어 있다. 본보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직 설계조차 되지 않았다고 들었다. 올해 안에 착공될 수 있는가? 그리고 외국학 종합연구센터 건립에 따른 강사 섭외나 외부지원 등은 되고 있는가?

"현재 설계가 마무리되고 있지 않아 즉각 착공하기 힘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올해 안에는 꼭 공사가 시작될 것이다. 외부 지원의 경우 외국학 종합연구센터의 건립이 외대를 지역학의 메카로 재부상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곧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또 강사섭외 등도 계속 노력하고 있다."

- 각 대학들이 우수한 신입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각종 홍보전략들을 세우고 있다. 한 예로 성균관대는 학교가 나서서 재학생을 중심으로 홍보팀을 꾸리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외대의 이미지 재고 등을 위해 어떠한 홍보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외대를 알리기 위해 만든 홍보비디오 테잎을 보니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됐다. 그래서 지금 학교 홍보비디오 테잎을 다시 만들고 있다. 또 방중에 지방 4개 도시를 순시하며 학부모들과 고3 담임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입시설명회를 개최했다. 참여자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아 앞으로도 서울 4개지역과 인천, 춘천 등의 순시를 계획 중이다. 이렇게 나부터 직접 발로 뛰어다니면서 외대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홍보과에서는 홍보전략 마련을 위해 연구하고 있으며, 재학생 중심의 홍보팀도 구상 중이다."

- 이번 학기 본교의 학사제적자가 37명, 학사경고자가 1천4백52명이다. 전국에서 계명대 다음으로 많은 숫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책이 강구돼야 하지 않겠는가? 또 학사경고자 중 1학년만 절반이 넘는 8백47명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외대는 우수한 학생이 많이온다. 영어과 수능 평균이 타 사립대학의 어느 과보다도 높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렇게 우수한 학생들이라면 충분히 서울, 연고대를 생각할 수 있다고 본다. 즉 학교에 정을 못붙인다고도 볼 수 있지만 대부분 재수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다. 37명의 학사제적자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이들도 따로 항의를 하지 않는다. 학교가 처벌로써 학생을 다스린다고 생각하기에 앞서 최소한 이정도의 공부는 해야 한다고 봐야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학사제적제도는 학교가 일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전체교수회의에서 교수들이 외대의 품위와 학생의 질적우수성을 위해 직접 도입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했으면 한다."

- 이번 학기는 누구나 인정하듯이 우리 학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학기라 생각된다. 이번 학기 학교운영을 위해 지니고 있는 방안과 포부는?

"이번 학기로써 총장 4학기 째가 된다. 우선 마음가짐이 성숙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 학기에는 주변을 치밀하게 정리하고 96년을 대비하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 교육내용의 개혁을 비롯해 학내 시설 확충 등 내년에 있을 학교발전 계획을 재정비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 내 자신은 열심히 노력할 것이지만 이는 내 개인적인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외대 전구성원이 함께 힘써 줬으면 한다."

대담 : 강민홍 본보 편집장,
정리 : 김재경 차장

변의자 국

대립과 대화

▲'해방 50주년'이라는 의미있는 해를 맞았다. 일제의 굴레에서 벗어나 반세기가 지난 그리고 동학농민혁명을 기점으로 50년을 주기로 찾아오는 민족사적 대전환기를 맞이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민족사적 대전환기를 맞이하는 우리 민족의 심정은 '해방'됐다는 감격과 보다 오히려 '분단'에 의한 아픔이 더 크다. '분단'이라는 절구의 모습이 더이상 지속되지 말아야 한다는, 그리고 앞으로의 반세기는 기필코 하나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우리 민족의 절실한 심정이 '해방 50주년'이라는 단어 안에 녹아있는 것이다.

▲'분단'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지난 독재정권들과 식민지배를 위한 미제의 극단적 '반공'정책의 결과물에 다름 아니었다. 그리고 그러한 '분단'의 피해자는 미제도 독재정권도 아닌 바로 우리 민족 자신이었다.

'분단'을 유지시킨 '반공'이데올로기는 두터운 불신의 벽을 만들어 서로를 미워하게 했고, 심지어 해방 5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의 8·15 행사조차 따로따로 떨어져 치뤄야 하는 비극을 만들어냈다. 이산가족들은 올 추석에도 고향을 가지 못하고 한숨만 쉬는, 단지 북한의 있는 그리운 형을 보려 했던 박창희 교수가 국가보안법이라는 악법에 고통을 당하는 현실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불신의 벽을 허물고 서로를 인정하며 신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자신의 체제를 우위에 놓고 상대방을 흡수하려는 권위주의가 아닌 서로를 존중하는 자세로 지금의 대립구도를 하루 빨리 청산하고 대화와 토론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바로 이러한 노력이 '분단'의 아픔을 중단하는 그리고 하나된 자주적 국가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지난 학기 편집자율권에 대한 학생기자와●학교측의 의견대립으로 마찰을 낳았던 외대학보가 우여곡절 끝에 정상발간되게 됐다. 외대학보 마찰의 가장 큰 피해자는 독자인 외대 학생·교수·직원이고, 독자들은 외대학보 정상발간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대립이 아닌 대화와 토론의 자세로 거듭 태어나는 모습을 보이고자 한다. 이러한 성숙된 모습이 바로 외대학보 주인의 요구이고, 더 나아가 외대발전의 첫걸음이기 때문인 것이다.

강 민 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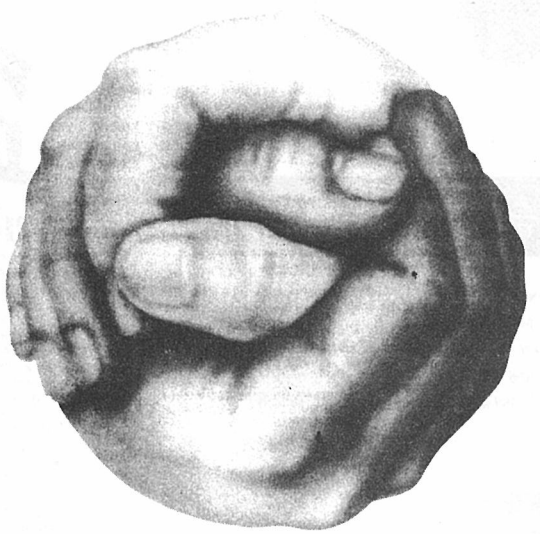
알 림

개강과 함께 외대인을 찾아가야 할 본보가 뒤늦게 인사를 드리게 됨을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발분의 기회로 삼고 전 외대인의 목소리를 담는 정론지로 다양한 기획과 정보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주 638호부터 3면 대학보도는 보도와 함께 심층적 분석을 담는 대학심층면으로 10면 심층보도는 대학내 제반문제를 아우르는 풍부한 기획을 담는 대학기획면으로 바뀝니다. 아울러 '자명종' 칼럼이 '외대와 나'로 새롭게 단장합니다. 또 12면 생활정보면은 6면으로 이동합니다. 사정상 비둘기칼판과 생활정보면이 쉬게됨을 알립니다.

진실만을 말해오길 40년



"지켜나가겠습니다"

민족자주언론
외대학보

사 설

부메랑과 칼

가을이 성큼 다가서고 있다.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가운이 감돌고 하늘도 높아보인다. 하절기 방학을 마치고 캠퍼스로 돌아온 학생들의 발걸음도 가볍게 느껴진다. 그러나 삶쟁의 아픔과 폭우의 흔적이 아직도 주변에 흩어져 있고, 지방선거 이후 후 3김 시대의 도래와 보수회귀의 정치지형 변화도 심상치 않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긴장시키는 것은 대학경쟁 시대가 바로 눈앞에 다가왔다는 사실이다. 세계화, 개혁, 자율화는 결국 보호막의 철거를 의미하며, 대학들은 벌거벗은 채로 생존의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대학신설과 독립적인 특수 대학원의 설립이 용이해지고 외국대학의 국내 진출도 수년내에 가능해지는 반면 대학교육의 수요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대학간의 상호 경쟁은 점차 치열해질 것이 확실하다. 교육부도 대학의 상대평가를 통해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각 대학들은 우수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에 힘쓰고 있으며, 졸업 후 사회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하고 있다. 동시에 대학의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투자재원 확보에 몰두하고 있다.

우리 대학도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라 교수연구동, 지역연구종합센터 등의 건물을 신축하고 통신망 확충으로 연구와 학습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며, 재정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급변하는 교육환경의 변화와 타 대학들의 폭넓은 개혁과 공세적인 발전전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된다.

우리는 아직도 수세적 전략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희미해지는 보호막을 끝까지 부여잡으려고 버둥거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난 40년간 축적해 놓은 명성과 기득권을 누리며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반성해야 한다.

우선 있는 그대로의 현실과 상황의 변화를 냉철하게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교우위를 자격왔던 어학교육은 타 대학의 근질긴 침투와 사설교육기관들의 시설확충으로 흔들리고 있다. 국내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통역대학원도 타 대학들이 유사한 전문대학원의 설립을 신청하고 있어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되었음이 사실이다. 지역학의 도입도 강의교수의 확충이 부족하고 전공 졸수학점이 하향조정될 것으로 보여 어려움이 예상된다. 재정확보에 있어서도 장미빛 미래가 곧 도래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외대 구성원 모두가 현재의 위기감을 인식하고 변화와 개혁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다. 참여의 선결조건은 관심이다. 언제부터인지 학생들은 학생회의 사업에 깊은 관심을 두지않게 되었고, 교수들도 학교가 처한 상황을 그리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 것 같다. 자신에게 직접적인 이해가 없다고 주춤하고 안주하려 할 때 그 부정적 결과는 곧 부메랑처럼 돌아온다. 변화와 개혁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인 동시에 과제라면 외대 구성원 모두가 이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 위해서 일부 보직교수와 학생회 간부 그리고 직원노조의 의견이 아니라 평교수, 일반학생, 직원들의 중의가 반영될 수 있는 틀이 복구되어야 한다. 앞으로 학교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틀은 더욱 필요하다. 구성원들의 동의와 상향적 의견수렴에 의한 정책결정은 이후 결정의 추진을 쉽게 할 수 있다.

우리 앞의 도전은 만만치 않다. 그러나 결코 좌절할 일은 아니다. 위기는 곧 기회를 뜻하기 때문이다. 경쟁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 기회에 외대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녹슬었던 칼을 다시 갈아 과거의 명성을 되찾아야 한다. 지난해 40주년 개교기념 외대인의 날에 분출되었던 외대인의 힘을 다시 결집시켜야 한다.

흡산의 소리

외대인들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담고 싶습니다.
진실된 삶, 함께 하는 삶을 소망하는 외대인들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여기에 싣고 싶습니다.
원고지 4~6매에 그 목소리를 담아 매주 금요일 오후5시까지 본보 학생기자실로 가지고 오십시오.
채택된 원고에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외대학보에서는 컴퓨터통신(하이텔 · 천리안 · 나우컴)을 통해 원고를 받습니다.
ID는 모두 'OEDAE' 입니다. 원고에 이름과 단대 · 과 · 학년도 같이 밝혀 주십시요.

교과과정 개편안 3자가 함께 논의해야

작년 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대학종합평가인정제의 시행을 결정하였다. 대종평은 잘 알려졌다시피 교육, 연구, 사회봉사, 시설, 재정 등의 8개 분야에서 대학을 평가하여 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올해 평가가 예정된 서울소재 19개 대학들은 평가기준항목 중의 하나인 교수대 학생비를 낮추기 위해 교수확보의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고, 어느 대학을 가던지 캠퍼스 내에서 공사가 진행중이지 않는 학교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문 캠퍼스에서도 교수연구동을 건립중이고, 각종 조경사업으로 외양만으로는 한결 나아진 캠퍼스를 방학을 끝마치고 돌아온 학우들은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외대발전의 실제 내용적인 진전은 거의 안보이는 듯 하다. 대학발전의 내용적 측면에 대한 기회이라 할 수 있는 교과과정개편안이 미결정사항으로 남아있고, 오후 5시만 되면 온통 외대 전체가 풍물패 연습공간으로 돼버리는 것도 여전하다. 과도서관, 실습실도 여전히 학우들에게는 멀리만 느껴진다. 언론에서 한껏 떠들어 학우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Internet도 일반학우들이 혜택을 받기는 불가능하다. 평가기준에서 위의 사항들이 제외된 것이라서 그런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좋은 대학이란 입학생의 수능평균점수가 높거나 넓은 캠퍼스에 높은 건물들이 즐비하게 늘어선 것 만은 아닐 것이다.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며 사회에서 만족을 느끼는 졸업생들이 많은 학교가 좋은 대학일 것이다. 무엇으로 이것을 측정할 것인가? 또한 문제는 교과과정개편안을 비롯한 외대발전의 노력에 학원발전의 주체들인 교수, 학생, 교직원 3자의 의견을 포괄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외대가 60·70년대 당시에는 지금보다 그 시설이 우수하고, 외양이 아름다워서 우수한 사립대들을 제치고 손꼽힐만한 대학이었던 것은 아니다. 외대의 독특한 학풍과 캠퍼스의 분위기, 특화하여 우리만의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을 뽐아내지 못하는 겉모습만을 발전시키는 것은 21세기를 준비하는 자세일 수 없다. 21세기를 불과 몇해 앞두고 학생과 교수들이 함께하는 진정한 외대인의 발전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금인데, 캠퍼스에 외대발전을 이야기하는 그리고 그 의견을 들으려는 자리는 전무한 것이다.

손창원(정책 · 신방 3)

주간교수, 독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1학기 외대학보 개강호 1면에는 '용인 교통난 다소 혜소'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왕산 최대의 현안이자 난제였던 교통문제 기사는 당연히 수많은 왕산학우들의 시선을 끌게 하기 충분했다. 그러나 곧 독자는 이상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기사는 △학교당국과 학생들 간의 마찰의 원인, △진행과정, △학생 요구안과 학교와의 세부 합의사항 등의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즉, 긍정적인 내용의 제목이 들어갈 내용의 기사가 아니었다.

이 기사와 관련해 총학생회 교통담당 간부로서 기자의 취재 요청에 응했던 본인은 답답 기자에게 강한 불만을 제기했었다. 어떻게 기사의 내용과 전혀 무관한 제목으로 기사가 나갈 수 있는 지에 대한 질문에 기자의 말을 들어보니 기자들의 의도와는 무관한 일이었다. 당시 주간교수와의 의견대립으로 어쩔 수 없이 제목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갈림길오는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진리를 왜곡했다. 진리를 알고 있지만 어쩔수 없었으므리. 기자들은 학우들과의 약속인 신문발행을 지키기 위해 진리를 왜곡 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기자들에게 듣지 않았다면 누구도 알 수 없는 이야기다. 주간교수의 독단적인 판단과 강압적 지시에 의해서 기사의 내용과 제목이 뒤바뀌는 편집자율권의 상실은 과거 군사독재정권의 '보도지침'과 무엇이 다른가?

교수를 떠나 이 시대의 지성인으로서의 품성마저 의심케 만드는 주간교수의 편집자율권 침해는, 대학언론의 미래마저 어둡게 만드는 것은 물론 수많은 독자의 읽을 권리와 진실을 알 권리를 빼앗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 말이다.

한 사람의 독자로서, 취재원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단호히 거부되어야 하며 외대인의 힘으로 편집자율권을 지켜내어 외대학보가 학우들의 권리를 지켜나가는 진정한 언론으로 성장케 해야 할 것이다.

전민근(서학 · 서반어 4)

주차문제 대안은 주차타워 건설

좁은 서울캠퍼스의 주차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도서관 앞을 빽빽히 들어차고 있는 많은 차들을 보고 있으면 참으로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가뜩이나 좁은 캠퍼스를 더욱 비좁고 삭막하게 만든다고나 할까. 이에 대한 그동안의 학생회나 학교당국의 노력은 있었으나 단기적이며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본다. 또한 현재의 주차문제는 단지 공간의 협소함이라는 단순한 불편함의 문제를 떠나 교육환경(최소한 학생들의 동선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의 심각한 침해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학교당국의 경우는 주차문제를 제2연구동이 완공될 97년까지 미루고 거의 방치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물론 주차관리비 징수 등의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하지만 이는 많은 외대인들의 공감을 얻어내기 힘든 방안이고 당연히 학교가 져야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지금의 주차공간을 최소화시키고 최소한의 교육환경을 유지하기위해 주차타워의 건립을 제안한다. 흔히 도심의 큰 빌딩가에서 볼 수 있는 주차타워는 약 2백대 가량의 자동차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다. 위치는 지금의 대학원과 연수원 사이가 적당하다. 다만 건설비용인 5억원 정도라는 것이 부담스럽지만 그로 인해 연수원 앞과 도서관 앞의 자동차를 수용하여 생기는 교육환경의 개선을 비교한다면 그리 망설일 이유가 없고, 유료(물론 싼 요금으로)로 운영하고 회원제 · 쿠폰제 등의 운영상 유연성을 살리면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본다.

방학진 〈법 · 법학 4〉

진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회가 어찌 진리의 상아탑이라 할 것이오?
- F 답답한이 -

왜 4명인가? 모든 기자와 주간교수 · 총장등 관련자는 다 징계내려라
- 거칠이 -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울껄?
- ? -

학교당국의 실수다.
학생들의 단결된 힘이 무엇인지 보여주자!!!
- 뭉침이 -

백지 독자보

주제: 지난학기 호외발간으로 4명의 기자가 징계를 받았는데…

누구를 향한 징계인가?
- 부메랑 -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마태복음 5:10)
- L 에이레네 -

이 정도로 물러설 외대학보였으면 애초에 만들지도 않았다
- 창조주 -

역시 우리학교는 세계유수의 명문 한국외국어고등학교야
- 고삐리 -

모의 유엔, 외대 학습의 선구자 돼야

지난 8월 중순경 모 일간지를 보고 한동안 착각을 했던 기억이 있다. 바로 전국대학생 모의유엔회의 때문이었다. 유엔 창설 50주년을 기념해 전국 25개 대학 1백72명의 대학(원)생들이 참가한 대규모 행사였다고 한다. 엄청나게 매스컴을 탔고, 관계자들 인터뷰가 실린 매체도 많았다. 나는 이 행사를 외대에서 주관하는 제19차 모의유엔총회로 혼동했던 적이 있다. 모의유엔총회하면 외대다는 등식이 내 무의식속에 성립돼 있었던 것인지. 어딘지 모르게 우리 외대의 자랑·내지는 전유물·으로 여겨지던 모의유엔총회가 따로 열렸다는 사실이 괜히 씁쓸했다.

나는 2년째 모의유엔총회를 직간접적으로 보아왔다. 행사를 직접 준비한 학형들보다는 잘 알지 못하겠지만 행사에 대한 나의 느낌을 간략히 적으려 한다. '인간만보와 국제사회 정의의 실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는 1백70여 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의 자료집만 보더라도 준비위원들의 노력과 흘린 땀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어느 때보다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제 "외대의 살길은 지역학이다"라는 말이 유행어가 된 지금, 이제 모의유엔총회도 그 운영을 달리해야 한다고 본다.

기존에 알려져 있던 내용을 수집 · 재구성해서 해당 국가의 언어로 번역, 원어로 대표들이 연설하는 게 지금까지의 운영방식이었다. 마치 외국어 중심으로 성장해 오던 이전 외대의 모습과 풍기는 이미지가 비슷하다. 지금은 그 외국어로 더이상 큰소리 치지는 못하지만 말이다. 모의유엔총회는 학술행사가 돼야한다. 그렇게 되려면 지금의 운영방식에서 새로운 방식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 생각은 각 나라별로 외대 해당언어과의 학생들로 구성된 팀을 만드는 것이다. 나라별 1명의 대표위원과 소수의 준비위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나라에 대해 공부하고 싶고 알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모집해서 그 학생들이 직접 각 나라의 내용을 생산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모의유엔총회는 1년간 준비한 학생들의 활동을 학술적으로 평가하고 대중적으로 검증하는 외대 학술운동의 터가 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외대가 어학만으로는 더이상 경쟁력을 갖추지 못해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에 발맞추어 지역학을 도입하려는 것처럼 모의유엔총회도 '학술'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환골탈태해서 외대생 누구나가 관심갖는 외대만의 자랑으로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소종수 〈서양 · 포르투갈어 2〉

학사제적제도, 교육자적 관점으로 재검토 필요

민족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올해는 윤달이 낀 이유로 유난히 빨리 찾아왔다. 제각기 고향을 찾는 설레임과 그리운 이들을 만난다는 기쁨으로 즐거운 한가위를 보냈으리라. 그러나 마냥 즐겁고 기뻐해야 할 한가위가 두려움과 공포로 다가가는 친구들이 있다.

바로 학사제적생들이다. 이들은 지금 우리주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강의실에서도 학생회실에서도 과방에서도 운동장에서도. 보이지 않는 만큼 우리에겐 쉽게 잊혀지고 있다.

'2.0 미만 4번, 1.5미만 3번' 학사제적 기준이다.

"공부못하면 학교를 떠나라. 4학기 동안이나 기회를 주었는데도 정신못차리고 공부안했으면 스스로 책임지고 공부를 포기해라.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

과연 이러한 학사제적의 명분이 타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일까?

정부는 5 · 31 교육개혁안에서 평생교육기회의 확대를 골자로 학점은행제등의 정책을 펼쳤다. 대학교육의 기회를 넓히겠다는 긍정적인 의도와 함께 사학재정 확충이라는 자본의 의도도 포함된 정책인 듯 하다. 교육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평생동안 평등하게 주어져야 하는 것이다. 최소한 교육의 기회만큼은 말이다. 대학안에 있는 구성원에게는 기회를 박탈하고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산심을 쓴다? 이해가 되지않는다. 그렇다면 직장생활을 하다가 대학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사회인이 평생교육원등의 기관에 입학했을 때도 몇학기 동안 몇학점 미만이면 제적시킬 것인가?

대학교육은 강의실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절대 아니다. 동아리등의 취미활동과 학생회등의 단체활동을 통해서도 상당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실제로 사회봉사기능과 예비사회활동 교육기능은 강의실보다는 강의실 밖에서 더 활발히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대학사회이다.

고등학교 때도 공부못한다고 제적시키지는 않았다. 하물며 대학에서 공부못한다고 제적시키는 것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수님들도 입정기간에 권위있는 몇편의 논문을 발표하지 않으면 교수직을 박탈하는 제도도 한번 만드는 것이 어떠할까? 교수님들이 박사학위 논문등을 근거로 교수로서의 평생자격이 주어진다면 대학생도 이미 학교에서 치룬 입학시험에서 평생동안 그 학교에서 교육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학사제적제도는 입학시험이 자격시험으로 그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우스운 반증이다.

더우기 학사제적 제도는 그 생성 배경부터 아주 불순한 의도가 숨어있다. 그래서 더더욱 폐지돼야 한다. 정권의 학생운동권 탄압과 사학재단의 반재단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가장 좋은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학사제적제도에 대한 이러한 비판때문에 서울대를 비롯한 20여개 대학은 정부의 강력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학사제적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학교에서는 93년부터 이번 학기까지 벌써 2백명이 넘는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 배회하고 있다. 정부에서 하라하면 무조건 따르기 보다는 올바른 교육자적 관점을 지니고 줏대있는 학교행정을 외대에서도 기대해 본다.

이현재(사회 · 무역 4)

Global Leaders of Tomorrow
제2회 글로벌리제이션 論文大賞

미래의 세계 지도자는 누구인가?
조심삼, 정호영, 김진우, 임업 …
이들이 바로 지난 해의
Global Leaders of Tomorrow.
과연 올해에는 누가
Global Leaders of Tomorrow가
되어 미래의 창을 열 것인가?
이번 「제2회 글로벌리제이션
논문 대상」에서는
500만원의 장학금이 수여되는
대상을 3명으로 늘렸으며,
9명의 수상자 전원에게
해외 명문대 입방의 특전이
주어진다.

● 응모 마감 1995년 10월 20일
● 시상 및 부상 대상 3천 각 500만원
우수상 3천 각 300만원 가작 3천 각 100만원.
수상자 전원 해외 명문대 입방
● 응모 문의 선경그룹 홍보실
전화 02) 729-4834, 4838

모자를 벗자, 머리를 열자, 가슴을 열자, 미래를 열자!

여름 방학 끝, 다시 새 학기. 반가움 나누며 수강 신청 마치기 무섭게 어느새 중간 고사. 도서관 몇 번 들락들락. 수업, 실험, 어물어물 벌써 기말 고사. 맙소사 또 방학? —— 자! 벗어버리자. 우리, 도무지 변화 없는 일상의 틀, 그만그만한 평범의 일과표들을! 조금은 모험적으로, 때로는 과감함으로, 글로벌리제이션 시대의 열린 사고를 논문으로 표현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저 광활한 세계와 미래로 뛰쳐나가는 기회에 도전해보기도 하고, 가슴을 활짝 열고 짊음의 열정을 흡연 느낄 연극에 빠져보기도 하며, 연극이 끝난 뒤 모자를 벗어 날리며 환호하듯, 새로운 가을, 우리 짊음도 새로운 환호를 터뜨리도록!

제18회 대학연극제 95

"대학생들이 하면 얼마나 하겠어?"
이런 대책 없는 편견을 깨드린
(94 대학연극제)
「굴뱅이 벌의 전지」「컴퓨터의 결혼」
「살인 놀이」「태지와 오토바이」 … 등에서
보여준 대학 극단들의 활짝 뛰는 생동감과
해내고야 말겠다는 열기를
올 가을에도 다시 만날 수 있다.
과감한 실험 의식이 늘 돋보이는
대학 연극 문화의 최대 축제 마당.
(95 대학연극제)가 10월.
국립극장 소극장에서 그 막을 올린다.
● 본선 1995년 10월 1일~9일.
● 시상 및 부상 대상 1명 1,000만원(해외 연수 5일) 금상 1명 500만원(해외 연수 5일) 은상 2명 각 300만원 동상 5명 각 150만원
● 행사 안내 한국연극연출가협회 내 (대학연극제) 사무국 전화 02) 362-2302

SUNKYONG
鮮京그룹

본교 교육과정개정안 발표돼

강의 상대평가제·어문계열 전공월반제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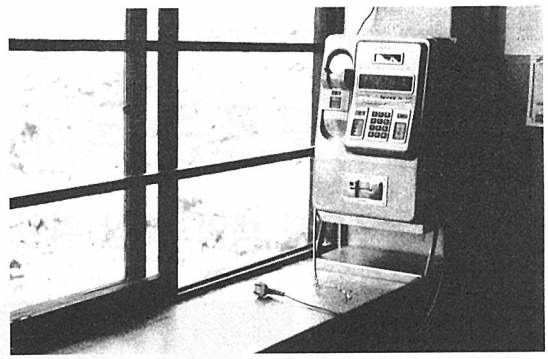
본교 제 5차 교육과정개정안(개정안)이 지난 8월 24일(목) 용인캠퍼스에서 열린 하계 교수회의 자리에서 발표됐다. △교양필수 6개 영역 통폐합 △교양영어의 실용영어로의 개정 △1주당 수업시간 연장 △어문계열 전공월반제 도입 △모든 강의에 상대평가제 도입 △지역학 교과목 개설 등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로 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본교 교육이념 실현 △변화하는 사회에 능동 대처 △국내외 대학간 경쟁에서 비교 우위 창출 △학생 선택권 부여로 학습동기 조성 △정부 교육개혁안 반영 등을 기본 전제로 하여 작성됐다. 〈관련기사 10면〉

개정안을 맡아왔던 이은진(교육학) 김태동(일본어과) 김애실(경제학과) 신민웅(통계학과) 신문수(영어과) 5인의 교수로 구성된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연구위원회)는 본교 교과과정의 변천사를 서술하면서 "대학자율성 제고·대학의 학구적 풍토 일신을 위한 정부의 5·31 교육개혁안에서 드러난 정부의 교육개혁 의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전면적인 교육과정의 개정을 기획하게 되었다"고 밝혀 이번 개정안의 목적을 분명히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96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며, 휴학했다 96년에 복학해 6개학기 이상을 다녀야 하는 학생들도 대상에 포함된다.

김재경 기자



전화기 수난 이문캠퍼스 학생회관 3층에 화재후 새로 설치된 전화기가 학생들의 부주의로 수화기가 떨어져나간채 방치되어 있다.

"토론 대화로 정상발간 힘쓰자"

주간교수 기자들에게 구두 약속

지난 학기 말 646호 6개 기사에 대한 게재 문제로 전면적인 편집자율권 마찰로 비화됐던 외대학보 사태가 뚜렷한 해결없이 일단 일단락됐다.

개강 이후 지난 학기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한 공동사과와 "주간교수와 학생기자 간의 대화와 토론을 통한 합의로 신문을 제작한다"는 내용의 이미지 광고 게재, 지난 학기 호외제작으로 내려진 징계(김인옥 전편집장과 이수미 전 문화부장의 무기정학) 철회 문제로 학생기자·주간교수 간의 의견대립이 있었다. 그러나 '외대학보 정상발간'이라는 독자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주간교수·학생기자 간의 공유가 이뤄졌기 때문에 뚜렷한 문제해결 없이신문이 정상발간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 학기 말 646호 신문 제작과정에서 마찰이 된 기사는 △주제면 양캠 총학생회장 단식투쟁 기사, △사회기획면의 6·3청년학생대회기사와 통일선언문, △심층보도면의 외대발전 시리즈, △사회기획면의 안기부 비판 광고 등 총 6개로 전태현 주간교수는 "빼라"고 요구했다. 학생기자들은 이러한 주간교수의 요구를 편집자율권 탄압으로 규정, '외대'라는 이름의 호외를 발간하는 등 전면적인 '편집자율권 투쟁'을 벌였다. 또한 양캠 총학생회를 비롯한 많은 학생들은 주간교수의 노골적인 편집자율권 간섭을 규탄하고 이로 인해 나오게 된 646호를 학교홍보지로 간주, 소각하는 투쟁을 벌였었다.

이러한 투쟁에 대해 학교측은 '외대'가 불법신문이라며 불법호외 제작·학교 명예훼손 등 4가지 이유를 들어, 전 편집장 등 2명에게 무기정학 오미나 전 문화부장 등 2명에게 유기정학 8주라는 강도높은 징계를 당사자의 의사도 묻지 않고 내렸다.

이로써 작년 2학기 2.0 성적조항으로 8명의 현직기자를 해직시키려는 것에 학생기자들이 전면적인 사칙개정투쟁을 벌인 이후, 또 다시 외대학보가 편집자율권 문제로 대립되고 있는 상태이며, 일단 신문은 정상적으로 발간될 수 있게 됐으나 앞으로 전면전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지난 학기 말 사태에 대해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 하용갑(정책·행정 4)군은 "외대학보를 학교홍보지화 하기 위한 의도를 이제는 아예 보란듯이 드러내고 있다"고 학교측의 반민주적 태도를 비판하며, "작년 성적조항을 내건 기자해직과 올 초 기자임명권 요구 등 사문화된 사칙을 들어 가했던 탄압도 궁극적으로 외대학보의 학교홍보지화를 위한 술책이었음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외대학보사 편집장 강민홍(서양 독어·3)군은 "우리 기자들은 최소한의 편집자율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신문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지난 학기 정식으로 투쟁을 선포했다"며 외대학보가 학교홍보지화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기자들의 입장을 강조하고, "그러나 진정 외대학보의 주인인 학생·교수·직원은 외대학보가 하루 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되도록 신문을 발행하기 위해 기존의 요구를 완화했다"고 주장했다. 애초 학생기자들은 '주간교수의 권위적인 자세에 대한 사과문 게재'와 '부당한 징계철회'를 요구할 생각이었으나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 '내부적인 서약서'와 '1/4선까지 징계해제'로 요구의 수위를 낮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로써 지난 1일(금) 개강호 편집계획서에서 지난 학기 사태에 대한 사과문 게재와 징계 1/4선까지 해제를 놓고 좁혀지지 않았던 의견대립이 결국 11일(월) 서로가 양보하는 선에서 신문을 정상발간하기로 결정난 것이다. 가장 심하게 의견이 대립되던 지난 학기 사태에 대한 사과문과 주간교수와 학생기자 간 대화와 토론을 통한 합의로 신문을 제작하도록 노력한다는 이미지 광고 문제는, 개제하지 않고 서로간에 구두로 약속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또한 지난 학기 사태에 대한 징계해제는 1/4선까지 풀릴 수 있도록 총장, 주간교수, 기자 모두가 뛰기 조성에 노력하기로 했다.

신문정상 발간을 위해 뚜렷한 입장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태가 마무리된 것에 대해 외대학보 편집장 강민홍(서양·독어 3) 군은 "편집자율권 보장과 징계의 부당성을 기자들이 결코 포기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하고, 그러나 "또 다시 그러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본격적인 편집자율권 투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기자들의 입장을 밝혔다.

대학부

학사제적생 전국 2위

앞으로 상승될 전망

지난 학기 본교 학사제적생이 37명으로 전국 대학 중 계명대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교무처에 의하면 95년 1학기 학사경고생은 1천4백52명으로 이 중 절반이 넘는 8백47명이 1학년 신입생으로 나타나 본교 위상의 하락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에 대해 학적과 손천수 주임은 "본교 학칙은 타대학의 평균정도인데 제적자가 해마다 많이 나오는 것은 학생들이 공부를 너무 안하기 때문이다"라며 대학당국의 입장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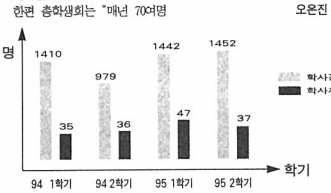
학사제적 제도는 6공화국이 주도한 학원안정화대책의 일환으로 고안돼 본교는 91년 전체교수회의에서 "대학의 질적 향상을 위한다"라는 명분으로 도입해 지금까지 시행해 오고 있다. (본교 학사제적생 변화추이 표참조)

한편 총학생회는 "매년 70여명의 학사제적생을 양산해내고 있는 학사제적제도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박탈하는 비교육적인 처사"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학사경고·제적생은 대학당국이 계획하고 있는 교육과정개정안(개정안)과 맞물려 더욱 증가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모든 교과목 수강인원의 40%는 C+이하로 평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더욱 엄격한 학사관리를 예고하고 있다.

안병만 총장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우수한 신입생들이 본교에 들어오긴 하지만 재수를 생각하고 학교에 애정을 갖지 않는다"라며 "37명의 학사제적생은 외대의 품위와 질적 우수성 확보를 위해 어쩔 수 없다"라며 학사제적제도보다 학생들의 낮은 학습열에 더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오은진 기자



〈학사경고 제적자 비교〉

□ 박창희 교수 5차공판

검찰 끼워맞추기식 수사, 윤곽 드러나

오는 18일, 서태수씨 증인 여부로 판가름 날 듯

그동안 학생들이나 동료들로부터 계속해서 제기돼 왔던 검찰의 무리한 끼워맞추기식 수사혐적이 공판이 거듭됨에 따라 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7월 5일과 12일 1, 2차 공판에서는 검사의 공소장 심문이 진행됐다. 담당검사는 박교수가 "얼굴도 알지 못한다"는 사람과의 대화과정을 녹음해둔 듯 세세히 말하는 등 사실무근한 공소사실로 일관했다. 또한 검사는 심문하는 과정에서 박교수가 늙은 점을 이용, 잘 알아 듣지 못할정도로 욕박지르는 등 허의사실을 인정케 하려하자 방청객들의 야유가 계속되기도 했다.

8월 9일과 14일의 3, 4차 공판에서는 변호인 반대심문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했으며 "북한의 지령으로 했다"는 박교수 사업들에 대한 검찰측의 주장에 대해 순수한 민족주의적 연구외도를 설명했다.

4차에 걸친 공판과정에서도 많은 부분 조작된 사실이 드러났지만 법정의 판단에 결정적 단서로 작용될 증인심문이 지난 4일(월) 5차 공판부터 진행되면서 박교수의 승리가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9월 4일 증인심문 내용을 간추리면 아래와 같다.

▲박건희(박교수의 친형, 재일교포 병원 원장)

"나는 청와대 자문기구인 평화통일 자문위원회에서도 일한 바 있고 줄곧 민단에서 일해왔다. 그런 내가 조총련계라는 안기부의 수사내용에 치를 떨지 않을 수 없다. 창의에게 지령을 내린 북한의 공작으로 지목받고 있는 서태수는 일본뿐 아니라 중국, 한국에까지 알려진 조선사의 대가로서 30년간 알고 지냈지만 친북 성향에 대해선 느낀 바도, 들은 바도 없다"

▲조덕성(조선일보 논설의원 지냄, 국민학교 명칭 개정을 정부에 처음 제기)

"처음 이사건을 신문을 통해 본 나의 느낌은 경악 그 자체였다. 박교수가 처음 발굴해냈던 마쓰시로 대본영문제나 독도문제, 그리고 국민학교 명칭개정문제를 내가 계속 여론화하고 특면 지원해줬던 것은 박교수처럼 민족의식이 뛰어나고 현실참여적인 교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가 만약 북한과 접촉한 것이 사실일지라도 결코 그가 북한을 위해 일했을것이라 생각할 수 없다."

▲김은형(박교수조교)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항상 사료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신문스크랩을 과제로 내주셨다. 자신도 항상 중요한 기사들을 스크랩하셨다. 검찰에서 북한으로 정보를 주기 위해 박교수가 신문을 스크랩했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또한 압수수색과정에서 과제물로 걷은 신문스크랩이 소량 없어졌다."

반대심문에 들어간 이검사가 "이래도 박교수가 한 스크랩이 아니냐?"며 제시한 증거 중 증거 30호와 31호가 김은형씨가 만든 것임이 드러나자 법정이 술렁이기도 했다.

현재 증인 심문은 오는 18일(월) 6차 공판까지 계속될 예정인데 변호인측은 북한의 공작원으로 지목된 서태수씨를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이며 그가 증언대에 서는 여부에 따라 재판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곽근영 기자

사 령

면
편집장
김 인 옥
(사범·영교 3)
임
강 민 홍
(서양·독일 3)

고객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삼성

不要, 不要—
모두 모두 외쳐라.
고대 중국, 개기일식이 시작되려 하면
누군가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不要, 不要(뿌야오, 뿌야오: 안돼, 안돼)—
개기일식현상을 용이 태양을 삼키려 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크게 소리치면 용이 태양을 놔둘 것이라고 믿었던거죠.
그러나, 1957년 인류최초의 인공위성은 태양을 삼키려던 용의 실체를
밝혀내고 미지의 세계를 인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지금은 우주도전의 시대—
삼성화재가 우주보험시대를 열어갑니다.
인류의 마지막 개척지, 우주—
용의 신비가 풀린 이래 우주는 끊임없는 인류의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1995년 8월 3일—
우리도 무궁화위성으로 우주개발 경쟁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첨단방송통신서비스 제공으로 우주개발경쟁의 참병이 될 무궁화위성—
삼성화재는 그 안전운행을 기원하며 무궁화위성보험을 인수,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도전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무궁화위성보험 인수를 신호탄으로 21세기 우주보험시대의
개척자가 되고자 합니다.
삼성화재-미래개척의 동반자입니다.

마음에 안심을 생활에 큰 힘을
SAMSUNG
삼성화재

□ 일본군 위안부문제의 국제법적 고찰

사죄 모르는 국제 범죄집단, 일본

형사적 책임·배상 위한 법적절차 마련 시급

강박에 의해 한일합방 조약을 맺은지 85년, 글욕적인 한일기본조약을 맺은지 30년이 지난 지금, 일본은 아직도 자신의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 반성의 여지가 없다. 이미 많은 국제조약에 의거해 일본의 식민지 중의 행위는 불법이며 '인도에 반하는 행위'임이 증명되었으며 이에 대한 사죄와 배상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당시자인 일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해결은 65년의 한일기본조약에 의해 모두 완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한국정부 역시 일본에게 타협의 손을 내밀고 있다. 이제 역사는 청산되야 한다. 고개를 숙일 자는 숙이고 이를 받아들이는 자는 좀 더 당당해져야 한다. 본보는 지난 6월 2일(금) '해방 50년, 한일수교 30년의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열린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원장 이장희 본교교수)의 포럼 중 본교 이장희(법학과)교수의 발제부분을 실었다. 〈편집자〉

많은 증거자료와 국제압력에 의해 일본군 위안부 모집의 강제성을 인정하고서도 사과할 것은 없다고 말한다. 사진은 정신대 문제를 국제적 인권 문제로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해온 피해자들(왼쪽)과 동경 아스쿠니 신사 희생자 묘역을 참배하며 나팔을 불고 있는 일본 우익주의자들(오른쪽)이다.(사진:한겨레 21, 시사저널)

이 장 희
〈본교 법학과 교수〉

지난 3월 일본 지도급 우익인사 중의 한 사람인 오쿠노 전법무장관의 "태평양 전쟁은 자위전쟁"이라는 발언은 다시 한번 한국인을 경악시켰다. 그들은 과거 일본 식민기간 중 침략전쟁사에 대한 반성은 커녕 오히려 미화하는 망언을 서슴치 않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을 이토록 당당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한국정부는 지난 93년 초 국내의 강한 국민적 반대여론을 무릅쓰고 정부차원에서 경제적 보상은 요구하지 않는 대신 일본의 성의있는 진상규명과 그 후속조치를 희망했다. 그런데 일본은 지도급 인사의 망언은 물론이고 일본의 극우 민간단체도 부전결의를 한 사회당 중심의 국회의원에 대한 테러행위를 서슴치 않았다. 더구나 이 '전쟁사죄 및 부전결의' 반대에 참여한 275명 국회의원중 76%인 207명이 한국을 잘 이해할 것이라고 믿었던 한일의원연맹 소속의원이라는 사실은 한국인을 더욱 경악케 했다. 이것은 일본의 절대적 다수가 과거 식민지 침략시에 향수를 느끼고 단지 그 동안 재기를 노리기 위해 그 검은 본심을 숨겨온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당시의 같은 전범국가인 독일은 겸허하게 지금까지 전쟁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일본의 태도와 대조된다.

일본의 전후 50년사는 군비를 강화시켜온 역사이고 동시에 전후에 당연히 해야 했던 전후책임을 청산하지 않은 역사이기도 하다. 2차대전 말 일본 전범처벌을 위해 1946년 1월 설치된 동경군사재판소에서는 일제 식민지 기간 중 일본이 저지른 강제징용 및 일본군위안부 성적 폭력행위를 포함한 반인권침해범죄는 처벌되지 않았다. 또 주권회복 후 일본은 오로지 자국출신 군인을 위해 점령하에서 폐지된 전상병자전몰자 유족 등 원호법을 부활하였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재일교포는 일본국적으로 귀화해도 원호법상의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돼 있다는 점이다.

일본은 한일협상 초기부터 한국정부에 의한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해 부인했으나 지난 89년 말부터 한국의 여성단체가 중심이 되어 이 문제가 국제적 관심사가 되기 시작하자 "군대위안부 문제는 일본국, 일본군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민간업자가 한 일"이라고 발뺌했다. 그러나 지난 92년 방위청에서 2차대전 당시 일본군이 위안소 설치, 관리 및 위안부 모집을 감독했음을 결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일본군의 공식문서 3건이 발견됨으로써 일본정부는 더이상 변명의 근거가 없어졌다. 그후에도 강제동원여부는 확실치 않다고 주장해 오던 일정부는 93년에 와서야 일본군에 의한 강제성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이는 한국의 정신대문제해결협의회와 민간단체, 그리고 인권과 관련된 국제적 압력에 의한 것이지 일정부의 자발적인 노력은 아니었다.

어쨌든 논의의 촛점은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문제의 법적 근거인 '대한민국과 일본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한일기본조약)으로 모아졌다. 그간 일본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의 부속문서인 청구권협정을 과거 식민지중에 저지른 모든 일이 해결된 근거로 내세우면서 법적책임을 부인했다. 일본측의 근거는 △양체약국 및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해결됐다는 확인조항, △협정서명일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한 것에 관해서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다는 청구권 포기조항, △당시 한국이 제기한 대일청구요강은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해석됐고 기타 보상문제가 명문으로 유보돼있지 않은 점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국제법적으로 논거가 빈약하다.

첫째,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최종적으로 소멸한 것은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이며 국가가 개인의 청구권까지 포기할 수 없으므로 개인의 청구권은 계속 유효하다. 따라서 위 협정 제 2조 3항에 한, 일 양국이 국가 및 국민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의 명백한 어구가 있다 해도 국가는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포기할 수는 있어도 국민의 권리까지 포기할 수는 없다.

둘째, 정신대 문제는 협정체결 당시 협정의 본질을 이루면서 또한 교섭당사자간에 그 해결의도를 이해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정'상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해 조약의 종료사유에 해당한다. 다시말해 조약의 종료는 그 조약의 수정이 포함되기에 정신대와 같은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한일청구권협정의 최종타결 조항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정부는 일본측에 추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특히 인간을 성적노예화하는 '인간성 파괴행위'에 대해서는 조약의 본질을 이루는 중대한 사정의 변화로 볼 수 있다. 국제선례로서도 독·불간 포괄보상협정 후 프랑스에서 국내사정의 변경을 이유로 독일에 추가보상을 요구한 예가 있다.

셋째, 청구권협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한 청구권문제는 해결하지 않았다. 청구권협정은 1910년의 한일합방조약이 적법하다는 전제하에 체결되었기 때문에 식민지과거의 행위 역시 당시 실정법에 의거 적법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청구권협정상 어디에도 일본의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동기간 중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한일합방조약은 강박에 의해 체결되어 무효이므로 식민기간 중 일본이 한국과 한국인에 가한 일체의 강제행위는 불법행위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본의 위안부 인권침해 행위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국제법의 위반이며 또한 그에 상응한 어떠한 국가책임을 부담하게 되는지 알아보자.

첫째 이는 뉴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 조례 제 6조와 동경군사재판소 조례 제 5조에 규정된 '인도에 반하는 죄' 위반이다. 둘째, 이는 일본이 1932년에 비준한 강제노동규약위반이며 셋째, 매춘을 위한 부녀자 매매금지에 관한 조약 제 1, 2조의 위반이며 넷째, 이는 육전법규관례에 의한 협약의 전문이 규정한 '인도의 법칙 및 공공양치의 요구' 위반이다. 다섯째, 국제관습법인 노예로부터 자유의 침해임이 명백하고 여섯째, 1968년 유엔결의 제 2391은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의 시효불과성을 확인했다. 다시 말해 전쟁범과 인도에 반하는 죄는 공소시효가 없다는 것이다.

위의 관점에서 볼 때 한일기본조약의 청구권협정은 재산적가치침해에 대한 국제민사책임을 규정한 것이고 인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국제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은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국제법상 이러한 인권의 침해는 가해자에게 반드시 배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배상의 형태는 화폐적 배상과 비화폐적 배상이 있으며 후자의 경우 희생자들의 도덕적 사회적 복지와 정의, 평화의 대의에 기여해야 한다. 이러한 비화폐적 배상에 포함되는 7가지 배상원칙에 따라 일본정부는 스스로 일본군 위안부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일본군 위안부의 총수자, 정책입안자 등의 명령체계 등 전모에 관한 진상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 그다음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행위가 국제법상 인도에 반하는 죄이고 전쟁범죄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정책입안자와 책임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 나아가 일본정부는 이에 대해 국제법상 배상책임을 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피해배상을 위한 법적조치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한국정부 역시 이제까지의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국제법과 국제선례에 입각, 한일청구권협정이 일본군 위안부 인권침해에 배상문제를 포함하지 않았고 전쟁범죄와 같은 형사책임은 아직 남아있음을 공식적으로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한국정부는 북한, 대만, 필리핀, 중국과 같은 아시아 피해국가들간의 연대회의도 소집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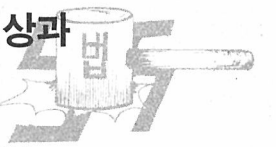
전범처벌과 역사청산의 국제적 선례를 찾아 - 독일

독일의 경우 과거 전쟁범은 철저히 국제적 차원이나 국가적 차원에서 엄벌됐다. 국제적 차원의 처벌을 보면, 독일전범자들은 1945년 11월 20일부터 46년 8월 31일 사이 개정된 뉴른베르크 재판정에서 24명의 피고가 기소돼 그 중 2명은 탈락되고 22명에 대한 판결이 언도됐는데, 3명은 무죄, 12명의 사형언도는 크게 4가지이다. 첫째, 평화에 반하는 죄, 둘째, 전쟁범죄, 세째, 인도에 반하는 죄가 그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일본전범 처벌과는 달리 인도에 반하는 죄가 독일전범자에게는 철저히 적용된 점이다. 지금도 나치전범은 철저히 추적되고 있다.

독일국가 스스로도 나치전범처벌을 위한 국내특별법을 입법하여 그들을 처벌했고, 일체의 공직취임을 배제했다. 그리고 독일은 나치 피해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위해 국내적으로 전쟁희생자원호법, 연방보충법, 연방보상법등에서 독일과 관련된 피해 외국인을 보상대상자로 포함하여 보상했다. 그리고 독일은 이웃국가인 불란서와는 1960년 7월 15일에 '독불간 나치피해 박해조치로 피해를 입은 프랑스국민을 위한 지불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4억 마르크를 지급했다. 동조약 제3조에도 나치박해로 자유 또는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프랑스인 또는 그 유족에 대한 모든 청구권을 완전히 해결한다는 취지의 완결규정을 두었다. 그런데 프랑스가 독일에 강제징집자들에 대하여 추가보상을 요구하자 독일은 1981년 3월 13일 독·불이해증진 명목으로 '독·불이해증진 재단에 대한 출연조약'을 체결하여 2억 5천만 마르크를 위 재단에 출연했다. 한편, 독일은 1959년 룩셈부르크와 1962년에는 벨기에 및 스페인, 1963년에는 오스트리아와 각각 전쟁희생자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해당국 출신자로서 구 독일군 근무중 사망하거나 부상피해를 입은자에 대한 원호보상금 지급을 합의하였다.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이 끝난 후에도 나치 피해 유럽국가들 자신들도 국내법 제정을 통해 그 범죄를 지금도 철저히 처벌, 추적하는 것이 일상화됐

과감한 전후 배상과 가혹한 전범처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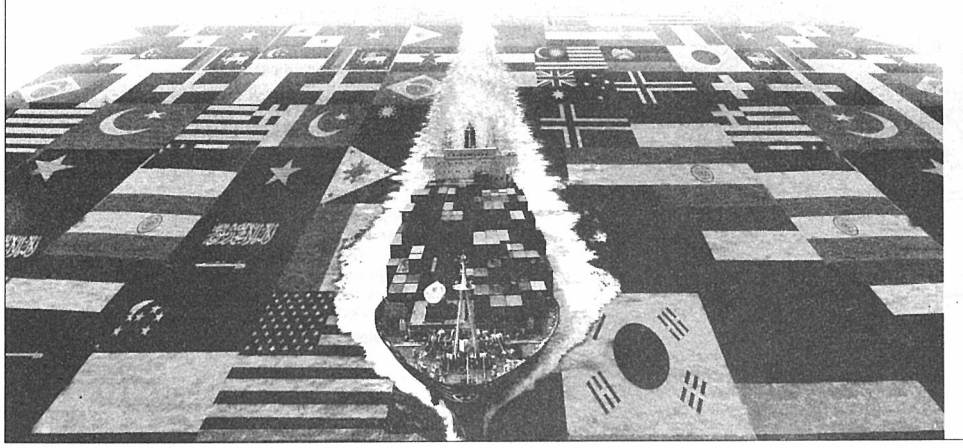
다. 그예로 이스라엘은 1950년에 '나치및 나치부역자 처벌법'을 제정하였다. 동법 제1조 (a)항은 처벌범죄자로서 1)나치정권 당시 유태민족에 대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한 자 2)나치정권 당시 적국에서 '인도에 반한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한 자 3)제2차대전 기간중에 적국에서 '전쟁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영국도 1945년 최허영장(Royal Prerogative)을 제정하여 패전독일의 영국군 점령지에 전범재판소를 설치, 그로부터 1949년사이 전범에 대하여 5백여건의 재판을 실시했다. 그후 1986년에 전쟁범죄와 비인도적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영국 국내법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캠페인이 또다시 일어나 마침내 독일과 그 점령지역에서 저질러진 살인등의 범죄에 대하여 현재 영국거주중인 범죄자를 재판할수 있는 관할권을 영국법원에 주기위하여 1991년 전범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그 처벌양식에는 차이가 있어도 캐나다, 호주, 덴마크 등과 같은 나라들도 나치관련 전범자들을 국내적으로 처벌했다.

상기 유럽국가들의 나치전범자 처벌의 법체제의 특성은 1)소급입법효를 인정한점 2)보편적 관할권을 인정한 점 3)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하는 범죄의 보편적 적용성을 확보한 점 4)국내입법조치가 없는 경우에도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범죄의 적용가능성 등이다. 제2차대전 후 1992년 초까지 독일이 나치피해자에게 직접 지불한 보상금 누적액은 약 41조원으로 그돈의 8할이 해외 거주자에게 지불되었다. 또 독일연방정부외에 주정부 차원의 독자적 보상도 실시되고 있다.

위의 예에서 공통점은 일단 자국의 군사관련 업무에 동원되었다가 피해를 입은자에 대하여는 피해당시나 현재의 국적 또는 주소지를 불문하고 동원주체국이 원호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 인도에 반하는 범죄가 철저히 처벌된 점이다. 이러한 선례는 일본의 2차대전에 대한 전범처벌과 청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진해운, 한국해운의 미래입니다



60개국 120여개 해외지점망에 해외주재원 120명 파견,
'94매출액 1조 5천억원,한국 제1위, 세계 제4위 선사로서
세계적 종합물류망을 갖춘 한진해운의 모습입니다.

한진해운의 최우선 투자는 국제전문인력의 육성으로서
한진해운은 세계화의 주역을 양성합니다.

- 전직원 대상 국제화 체험과정/해외 승선교육
- 국제화 도전과정(1년) - 해외 주요대학 연수
- 특수지역 전문가 양성과정(1년) - 미개발 지역 파견
- 해외 전문기관 연수 (1년)
- 지점장 양성과정 해외연수 (6개월)

오늘도 지구촌을 무대로 힘차게 뻗어가는 한진해운은
끝없는 인재교육과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21세기 초일류 종합물류기업
韓進海運

□ 중국-대만 분쟁 배경

중·미, 대만에서의 한판

중, 지역적 강대국으로 부상 시도
미, 동아시아 정치·군사적우위 유지

대만을 둘러싸고, 2개의 중국정책을 내세우는 미국의 입장에 대해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중국은 결코 대만을 놓치려 하지 않는다.
사진은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 이라는 표어로 독립을 바라는 대만인들이다. 〈사진:뉴스위크〉

미국이 동아시아 질서 재편을 서두르며 중국을 자극하고 있다. 지난달 중국출신 미국인 간첩 해리 우 투옥으로 시작된 듯한 중미분쟁은 중국 대만간의 전쟁위협으로 치닫고 있다.

중미분쟁의 배경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현상적으로 중국의 인권문제와 미국의 이등휘 대만 총통의 방미 허용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본질적인 것은 현재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해결될 수 없는 깊은 갈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미국과 중국의 첨예한 이해관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첫째, 중국에게 있어 대만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자기 신체와 같다. 반면 미국에게 또한 대만은 수많은 무기를 사들여 줄 수 있는 존재이다. 둘째, 미국의 세계정책에 반하는 핵실험과 핵무기 기술을 반미국가인 이란에게 제공하는 중국의 도전적 행위를 미국이 결코 묵과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셋째, 중국의 경제적 잠재력이 점차 현실화되는 가운데 정치군사적인 미국의 지위가 위협받게 되었으며 이는 동아시아 전략의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미국은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경제가 개방되고 자본주의 물결이 침투하면 중국의 사회주의적 색채가 점차 무뎌질것이라는 애초 미국의 판단이 어긋나고 등소평의 죽음을 앞두고 사상체계가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중국의 현실 속에서 미국은 큰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반면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자신이 중심국가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미국이라고 생각한다. 어제든 이러한 깊은 골로 인한 분쟁사태는 미국이 먼저 중국의 이해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치뤄진 중간선거에서 두개의 중국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게 되면서 중미분쟁은 본격화되었다. 그 후 미국은 중국의 잠재된 경제력이 미칠 영향을 우려해 새롭게 출범한 WTO에 중국이 가입하는 것을 방해했다. 또 미국은 이미 중국에서는 CIA의 간접으로 관망된 중국인권운동가 해리 우를 통해 국제세계에서의 중국의 인권문제를 건드렸다.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견제에 대해 NPT조약 연장회의 기간에 핵실험을 재개하고 미국의 NPT조약 지속화 방침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대항했다. 이러한 중국의 저항에 대해 더 큰 압박의 필요성을 느낀 미국은 중국에게 치명적인 급소인 대만의 분리독립 움직임에 접근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가중하였다. 중국은 미국의 이러한 행동에 즉각 반발하여 주미대사를 소환했으며 미국대사의 중국부임을 방해했다. 또한 대만으로 가는 여객기 항로에 대한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감행하고 1개의 군구를 대만해협 근처에 배치함으로써 대만침공도 불사하겠다는 자세를 취했다. 이에 대해 대만의 이등휘 총통이 핵무기 개발을 언급함으로써 대만해협은 일순 긴장에 휩싸였다.

이틈을 타 미국은 전통적으로 중국과 적대관계에 있는 베트남과 전격 수교했다. 속원으로 지내는 양국 국민감정을 카드로 중국에 대한 봉쇄정책을 더욱더 강화한 것이라고 중국은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중국과 미국은 총체적인 분쟁상태에 들어갔다. 애초에 제네바에서의 북미합의도 미국이 북한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보고 있던 중국은 이제 동북아에서 동남아에 이르는 동아시아 전체를 무대로 미국과 대항하는 관계로 들어섰다. 이 총체적인 분쟁속에서 미국은 대만에 대한 군사적 지지를 기정사실화하고 동남아 각국이 자신의 영향력 아래 들어오는 효과를 얻고 있다. 실지로 이번 아세안확대외무장관회담을 통해 중국의 위협을 이유로 동아시아에 미군의 주둔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끌어냈다.

그러나 중국도 호락호락하진 않은 것 같다. 중국은 전기침 중국외교부장과 크리스토퍼가 악수를 하고 미국이 하나의 중국정책을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잠교 2명을 간첩혐의로 체포하고 추방하였다.

또한 미국이 남북정상회담을 10월 유엔정상회의 시기에 주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대항해 북경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주선하겠다는 의사를 피력,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확보를 위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중미간 분쟁은 앞으로 세가지 방향에서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즉 남사군도를 둘러싼 동남아 각국과 중국,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문제, 한반도 평화체제를 둘러싼 문제, 대만독립에 관한 문제이다. 그중 대만독립에 관련한 문제는 미국이 지금까지 거둔 성과에 만족하고 하나의 중국정책을 지속하는 것으로 타협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동남아에서는 중국의 패권적인 행위를 경계하는 각국의 군비경쟁이 부추겨질 것이 자명하며 미국은 이 과정을 통해 동남아 각국으로 무기를 수출하고 미군의 동아시아 주둔을 확고히 인정받고, 미국의 영향아래 끌어들이려 할 것이다. 이는 동남아시아에 새로운 분쟁의 씨를 던져주게 될 것이며 동남아가 세계의 주목거리로 부상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엄청난 석유가 매장된 것으로 관명된 남사군도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이번 확대외무장관에서는 중국이 더이상 영유권확장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미봉하긴 했으나 앞으로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지아와 중국의 치열한 각축이 예고되고 있다.

김 성 회
〈전국연합 교육선전국장〉

학 술 단 신

오한진 교수, 30년 연구서 출간
독일문학과 비유럽권 국가의 문학사상 비교

오한진(독일어) 교수가 회갑을 맞아 제자들과 함께 비교문학적 차원에서 독문학을 고찰한 '독일문학과 세계문학'을 펴냈다. 30년동안 강단을 지킨 오교수가 이번에 출판한 책은 독일문학과 세계문학과의 관계를 전반적으로 살핀 뒤 개별 작가들의 사상적 작품을 외국문학과의 비교속에서 분석한 것이다. 이 책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러시아를 포함한 동구권 및 중동 아프리카 등의 문학과 독문학의 교류관계를 소개해 놓았다.

연구서는 총 3권으로 도서출판 벽호에서 출판했다.

남성우교수, 슬로바키아 다녀와

한국국제협력단의 대외 기술인력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본교 남성우(한교)교수가 지난 8월 13일(일)부터 28일(월)까지 슬로바키아의 브라티슬라바에 다녀왔다. 남교수는 이 기간 중 이지역의 코메니우스 대학에 신설되는 한국어학과의 자문위원 역할을 했다.

연대 '제 2대학' 개최
북한, 경제, 문화 등 강연

연세대 총학생회는 지난 11일(월)부터 오는 11월 10일(금)까지 '제 2대학'을 개최한다. 스스로가 원하는 교육내용을 마련하여 제도교육의 한계를 뛰어넘고 자치적 강연, 강좌의 일회성과 비체계성을 극복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열린다. 또한 비제도영역의 대학으로서 주어진 선택만이 아닌 자유로운 선택으로 대학교육을 강화하고자 마련되어진 제 2대학은 다양한 주제들의 강좌를 마련했다.

△북한의 역사:어떻게 바라볼 것인가(9/11-11/6)
△세계자본주의와 한국경제(9/13-11/8)
△성, 정치, 그리고 성정치(9/14-11/2)
△현장에서 미래를-한국사회와 노동자계급(9/14-11/9)
△문화 제대로 보기(9/15-11/10)
등록비:강좌당 1만원 문의:361-3643

용인, 학술강연회 개최
;21세기 통일과 정보화시대 대비

본교 용인캠퍼스 총학생회가 오는 13일(수)과 21일(목) 양일간 오후 5시 30분부터 신강의동 207호에서 '21세기 통일시대와 정보화에 대해'라는 주제의 강연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강연을 주최한 학술부 오영민(자연·수학 3)양은 "학우들의 교양지식을 넓히고 학문에 있어서 다양한 분야와 주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번 강연회가 왕산의 학술강연활동의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이번 행사의 의의를 밝혔다. 일정은 아래와 같다.

△13일(수)-'21세기 통일시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장기표(21세기 사회발전연구회 회장)
△21일(목)-'다가오는 정보화시대, 쉬워지는 컴퓨터'
이찬진(한글과 컴퓨터 사장)

외대학술풍토조성에 이바지해야 할 모의 UN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일(화) 본교 대강당에서 열린 제19차 모의 UN총회이다.

□제19차 모의UN총회- '인간안보와 국제사회 정의의 실현'

학술적 토대없는 사상누각

내용적 한계 지녀…다각적 연대 시급

제 19차 모의 UN총회가 '인간안보와 국제사회 정의의 실현'이라는 주제로 지난 5일(화) 서울캠퍼스 대강당에서 열렸다. 서울지역의 대학생들과 교수 5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약 4시간 가량 진행된 총회는 위원장의 대회사로 시작, 각국의 대표위원이 자국의 인권상황과 국가정책에 대한 내용을 각국의 언어로 피력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를 진행한 모의국제연합(모의 UN)측은 "유엔 창립 50주년이자 관용의 해를 맞아, 이제는 경제적 발전에서 부의 재분배와 사회복지에 관심을 돌려야할 때라는 생각에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됐다"며 이번 총회의 의의를 밝혔다.

모의 UN총회는 다양한 언어의 집산지라는 외대만의 고유한 특성을 보여주는 몇 안되는 행사가운데 하나이다. 세민제가 문화·예술분야를 담당한다면 이 행사는 학술, 즉 각국에 대한 지역학적 성과를 알려나는 자리인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모의 UN총회가 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 이유로 첫째, 모의 UN에 대해 외대 학생들의 인지도가 낮다는 점이다. 이번 총회의 대표위원만을 보더라도 외대학생보다는 타대학 학생들이 과반수를 넘는다. 이에 대해 모의 UN측은 "외대만의 행사가 아니라 범대학적 행사로 발전시키기 위해 타대학 지원자를 우선적으로 선출했다"고 밝혔으나, 이미 외무부에서 자체적으로 대학생들을 상대로 모의 UN총회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대의 것이 특수성을 지니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듯 인식도가 낮은 것은 총회 자체가 일회적 사업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체적으로도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영화제나 신문 발행 등을 실행했다. 그러나 낮은 인식도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각 과와 긴밀한 연계를 갖는 것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지역학적 접근의 한계로 인한 내용의 부실함이다. 이번 자료집은 6월 말경 선발된 대표위원들이 자신이 맡은 국가에 대해 직접 자료를 조사했다고 한다. 두어달이라는 짧은 시간에 준비했다는 면도 있으나 지역학적 연구없이 어학만을 가지고 자료를 번역해 담은 자료집의 내용은 아무래도 단편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 "힘의 질서가 지배하는 국제사회와는 달리 소수민족의 입장을 전달하고 각국이 동등하게 만난다는 점, 그리고 지역학적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을 높이 사고 싶다"고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 하용갑(정책·행정 4)군은 평가한다.

모의 UN총회가 명실공히 외대의 특색을 담아내는 진정한 외대인들의 학술적 행사로 각인되기 위해서는 "현재 각과에 있는 전공학회, 대학원 지역학부, 그리고 학내 지역학연구소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학교당국 역시 이 행사를 홍보용으로만 이용할 것이 아니라 학부과정에의 지역학 도입 등 과감한 지지·지원이 요구된다"는 것이 외대 구성원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외대를 다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참여할 수 있는 학술행사로 발전시키고 싶습니다"는 모의 UN 위원장 유병노(동양·이란 3)군의 말에서 모의 UN의 학술적 위상을 새롭게 할 제 20차 모의 UN총회가 기대된다.

〈사회부〉

특별검사제

소금상자

'특별검사제'란 중요한 정치적·사회적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3인 이내의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맡은 사건을 책임지고 조사하게 하는 제도이다. 특별검사제는 일반화된 제도라고는 할 수 없고, 주로 사회적이고 정치적으로 중요하거나 특이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만 발효되고 있다.

최근 5·18 광주민중항쟁 당시 무차별하게 광주시민들을 학살한 책임자 처벌 문제를 놓고 이 특별검사제가 거론되고 있다. 엄마전 검찰측은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 등 책임자들의 내란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방침을 내렸고, 이에 대해 현재의 검찰은 5·18문제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검사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각계 각층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러한 특별검사제 도입문제는 기존의 특별검사제와는 약간 차이가 있다. 즉 현직 검사를 특별검사로 도입하는 것이 아닌 각계의 시민으로 특별 검사를 구성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재의 검찰이 기존 5·6공 세력에서 완전히 벗어나 수사를 할 수 없는 단점을 보완하자는 것이다.

현재 이러한 내용의 특별검사제 도입 요구는 최근 부각되는 교수들의 집단 성명서에도 포함되는 등 국민들에게 전반적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사회정의와 질서의 확립, 사회적 도덕성 회복을 위해서 특별검사제는 반드시 도입돼 학살자를 처벌해야 할 것이다.

正道경영·초우량 LG

LG

"페인 선생님, 죄송해서 어떡하죠?"

데이비드 페인(1944~)
David Pein
영국의 과학자. 영국 Optical Fiber Group의 책임연구원. 주로, 광통신, 광섬유, 광전송, 광소자 쪽이 등에 관한 전문연구로 지금까지 무려 1000편의 논문을 발표했고 11개의 특허를 획득,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다.

광케이블, 광섬유—
선생님의 명성 드높긴 하지만
죄송해서 어떡하죠?
선생님의 그 명성을 앞서게 되면…

수십 Giga Bit/sec의 초고속으로
엄청난 양의 정보를 전송하는 광케이블—
내장된 광섬유의 직경은 245㎛,
실리카 글라스의 순도는 99.9999%—
사람 머리카락 보다 가는 이 기기막힌 유리관을
보통사람은 상상도 못했던 일.
그러나, 우리에겐 이미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선생님의 업적과 명성 드높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선생님의 그 일 보다
차원높은 21세기 "INFORMATION SUPER HIGHWAY"
기반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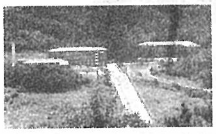
이 분야 세계 TOP에 도전하는 세계 10위 기업.
LG전선이 멀티미디어 시대를 가능케 하는
차원높은 광통신 기술로 미래사회의
핵심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LG전선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0(LG트윈타워)
TEL : (02)787-2344, 2334
FAX : (02)787-2640

■기초사업/비철금속 가공기술 분야, 절연재료 가공기술 분야
■주력사업/초고압 기술분야, 광통신, 광 응용시스템 분야

ENERGY & INFORMATION SUPER HIGHWAY를 개척하는-LG전선

□모현학사 식당운영 문제 있다



기숙사생도 잘 모르는 밥값 인상?

모현학사의 식권문제는 해가 갈수록 문제가 되고 있다.

"식권이요 40장 받았는데요. 특식은 없었구요"

"어 나는 45장 다 받은 것 같은데…. 역시 특식은 없었구요."

기숙사 로비에서 만난 학생들의 얘기다. 기숙사생들 사이에서도 식권을 몇장 받았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식권과 특식문제에 대한 질문에 위탁업자는 "식권은 45장이 나왔어요. 40장이 나갈리가 없는데…"라며 "특식권은 실수로 인쇄를 못했어요. 어쨌든 특식은 곧 나올겁니다. 또 특식이 나올 때는 사생증을 가지고 오면 식사를 할 수 있어요."라고 했다. 운영과에서는 "식권은 식당영양사가 주는 데로 학생들에게 줬어요. 45장이 맞을텐데"라며 고개를 가우뚱 거렸다.

"특식이 없어진 것은 특식이 나오는 날에 너무 많은 비사생들이 와서 밥을 먹는 바람에 음식양이 모자라서 없애버렸어요. 그 대신 일반 식사중에 특식이 나올거예요"라고 말해 위탁업자와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다. 분명 모현학사는 한 곳밖에 없는데도 말이다.

위와 같은 사실은 학생들에게 먼저 알려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점에서 식권의 가격을 인상하려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 학기까지만 해도 한 달에 45장을 배분하고 있었다.

정상적으로 식권을 인상하려면 먼저 사생회, 운영과, 위탁업자간의 협의를 하고 그것을 생협에 알려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이다. 생협은 생협이사회에서 결정이 나야 식권의 가격이 인상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는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이용해 가격을 인상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만약 식권의 가격은 올렸다면 그것은 분명히 불법이고 계약위반이다. 그리고 가격을 인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운영과와 위탁업자는 이러한 식권문제가 나왔다는 것에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식권을 잘못 세어준 것이 너무 많은 것과 특권을 어떻게 제공하겠다는 것에 대한 공고가 전혀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숙사는 수익사업체가 아니라 대학에 있는 하나의 복지시설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의 문제점들은 학교당국은 알아야 한다.

예비역인 한 학생은 "군대 있을때보다 밥이 더 맛이 없어요" 라고 해 기숙사 음식의 질을 알 수 있게 한다.

정유정 기자

명수당 (明水塘) □서 아프리카 하우다족의 축제(명절)

토착문화와 이슬람문화의 조화와 공존

장 태 성
〈아프리카어과 교수〉

축제는 사회적·종교적 의미가 결부되어 행해진다. 온 가족이 모여 햇곡식과 햇과일로 조상들에게 제사를 올리며 한해 동안의 은덕에 감사드리는 우리의 한가위 풍습에서 '제사'라는 의식을 생각해 버린다면 경부·호남 고속도로는 지금처럼 붐비지는 않을 것이다. 아프리카인들의 경우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면 그들의 것은 우리의 그것보다 의식적 색채가 약간 강하다는 점일 것이다. 서 아프리카 하우다족의 명절인 Id-el Fitr와 Id-el Kabir는 세계적 종교인 이슬람과 토속문화 전통이 어우러진 축제로서, 필자의 눈에 흥미롭게 비쳤으며 여기서 잠시 소개해 보고자 한다.

Id-el Fitr는 라마단 금식월이 끝난 바로 다음날 열리며 Id-el Kabir는 성지순례가 행하여지는 기간 중에 갖게된다. 이 때 각 지역의 제후들과 지도자들은 저마다 가솔을 이끌고 왕이 거주하는 도시의 외곽에 모여 그들의 왕과 함께 신에게 기도를 드린다. 이를 시작으로 해서 각 가정에서는 제물로서 양을 잡게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한 마리의 마른 양도 소중한 것이어서 온 식구들은 들뜨게 된다.

각 가정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도시의 외곽에서 기도를 마친 제후들은 왕이 거주하는 궁궐에 모여 행진을 하고 각각 왕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창을 비껴들고 말을 달려 궁궐앞 넓은 뜰을 쏜살같이 가로지른다. 이러한 의식들은 지배자들 간의 그리고 지배자와 피 지배자들 간의 종교적 일체감을 확인시켜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축제의 또 다른 의미는 가진 자와 못가진 자의 화합에 있다. 부자들은 여러 마리의 양을 잡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며 곡식이나 의복과 같은 것들을 집에서 부리는 가솔들에게 하사하기도 한다. 어떤 Almajiri(집을 떠나 타지의 Koranic School에서 공부하며 구걸로 연명해가는 어린 학생들)는 축제 몇 주전 부터 축제날 먹게될 음식들을 생각하며 들떠 있었으며 마을에서 가장 후한 인심을 가진 어른들에 대하여 상세히도 알고 있었다. 하우사 사회의 중요한 사회가치가 '관대함'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축제의 이러한 의미의 중요성은 충분히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그러나 역시 축제의 백미는 젊은 청춘 남녀들이 엮어내는 사랑의 추억일 것이다. 축제는 보통 2-3일간 이어지는데 이튿날 부터는 거리의 곳곳에서 전통악사들과 광대들의 놀이를 함께 목격할 수 있다. 이들 놀이의 내용은 때때로 샤미니즘적·반 이슬람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도 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아직 결혼을 치르지 않은 젊은이들이 이러한 놀이마당에 어울린다고 해서 사회로 부터 크게 지탄을 받는 것은 아니다.

놀이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여 여기서 언급할 수는 없지만 아직도 시골에서 종종 행하여 지고 있는 것 하나를 소개해 보고자 한다. 하우사 사회에서 대부분의 놀이가 그렇듯이 이것도 춤과 음악을 동반하는데 보통 해가 지기 시작하는 저녁 무렵에 시작된다. 북소리를 좇아 처녀총각이 삼삼오오 모여들게 되면 광대들 중의 하나가 처녀들을 놀이마당의 구석진 한 곳에 모아놓고 나오지 못하도록 새끼줄로 둘떵러친다.

그들이 그곳으로 부터 나올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밖에 없는데.. 구경하고 있는 총각들 중의 하나가 광대들에게 돈이나 음식 따위를 지불하고 소녀들 중의 하나가 갖혀 있는 곳에서 나와 춤을 출 수 있도록 춤곡의 연구를 부탁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 때 선택된 소녀는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 때때로 이러한 선택의 과정은 청년들 사이에 경쟁심을 불러 일으키며 유능한 광대 일수록 효과적인 방법으로 경쟁심을 유발시켜 자신의 호주머니를 두둑히 채운다. 하우사인들은 이러한 식으로 맺어진 처녀 총각 사이를 짜란체(Tsararnce) 관계라고 부르는데 슬프게도 이는 단 하루밤만의 인연으로 끝나게 된다.

짜란체 관계를 맺은 소년소녀는 인적이 드문 외딴 오두막집을 찾아들어 옷을 벗고 세모꼴의 천으로 중요한 부분만을 가린 채 나란히 눕는다. 관습상(이론상) 그들은 아무 짓도 해서는 안되며 밤하늘에 뜬 별빛만으로 17-8세의 젊은 열기를 식혀야 하는 것이다. 아름다운 추억인지 슬픈 추억인지 필자로서는 판단이 서지않지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이러한 풍습을 통하여 하우사인들은 이슬람의 전타 훨씬 이전부터 갖고 있던 그들 고유의 문화전통을 재확인하고 비록 소극적·묵시적 방법이긴 하나 토속문화와 토착화된 외래문화(이슬람)의 조화와 공존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지배자와 피 지배자 간의 종교적 동질성의 확인,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의 화합, 이질적인 문화요소들의 공존:하우사 사회에서 축제가 갖는 의미는 실로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축제는 이러한 거창한 의미를 벗어나 그 자체로서 즐거운 것이며, 축제날 하우사 평민(Talakawa)들의 잘 차려입은 옷과 그것을 뽐내는 그들의 표정에서 인류의 문화 보편적 현상으로서의 축제의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내 기억속의 외대학보

"학보는 대학인의 건강한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줬죠"

가수 유열 동문
〈상경대·무역 84〉

최근 아침 라디오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자신의 6집 앨범을 준비하고 있는 바쁜 일정속에서도 인터뷰에 응해준 유열(상경대·무역 84)선배

수수한 옷차림과 친근한 말투는 우리가 학교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선배들과 다를 게 없다.

다른 학교를 다닌걸로 알고있는데 외대에 다시 들어온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그는"제가 80년대에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학원사태 등 학교가 사회문제등과 결부되어 어수선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육에 잠시 회의를 느끼며 한동안 쉬다가 학교를 다시 찾게 된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그는 특별히 외대에 대한 기억으로 학원에 대한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등에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이라고 한다.

"지금의 학생들은 자신을 표현하는데 적극적인 것 같아요. 남녀 관계를 표현하는데 있어서도 어색함이 없고요. 예전에는 친구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학교내에서는 서로 부딪쳐도 모르는 척하고 어색하게 지나가기가 일쑤었거든요"라며 당시 문화방송 대학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은 그의 노래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와 지금 신세대들의 노래풍도 많이 달라졌음을 느낀다고 한다.

좁은 대학공간에서 특히 외대는 대자보 문화가 활발했던 당시 외대학보의 기사내용은 대자보의 주제가 되어 학생들의 화재가 되기도 했다고 한다.

"외대학보 하면 생각나는 단어는 정론직필과 민족 자주언론이예요. 어디를 가나 외대학보가 있는 곳이면 언제라도 들려오는 그 말은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것이 학보의 신념이었겠죠"라며 "제가 학보를 대할 때 당시에는 사회적인 문제를 많이 다루어 문화지면에 대해 조금은 소홀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대가 시대이니 그럴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이해합니다"라고 학보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학보는 대학생들만이 가질 수 있는 건강한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했고 지금도 그러리라고 믿어요"

요즘 외대학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그는 "사회가 변했다고 하지만 예전과 비슷한가 보죠?"라며 그는 "신문은 사실을 보도할 수 있는 객관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측의 주장이 강한 영향을 미친다거나 총학생회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은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라며 "이건 외대 출신의 선배로서 꼭 당부하는 게예요" 라고 말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후배들과 선배들이 외대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외대인이 하나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힘이 아닐까 합니다"라고 말한다.

김태형기자

생활시평

배움터를 아끼는 주인의 애정 아쉽다

요즈음 들어 '주인'이라는 말이 새삼스런 이유는 주위를 둘러보아도 주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보기 힘들어서가 아닐까 한다. 나그네는 흔해도 주인은 찾아보기 힘든 현 세태는 외대에도 만연해 있다. 아주 사소한 일에서 부터 큰일에 이르기까지.

개강 이후 이러저러한 술자리가 교내 곳곳에서 눈에 띈다. 잔디밭, 상경대 앞 벤치 등. 그간 떨어져 지낸 과, 동아리 선 후배, 친구들과의 반가움을 가벼운 술자리에서 회포를 나누는 모습은 정겨워 보인다. 하지만 정겨움을 나누고 난 빈자리에 남아 자리를 지키는 것은 술병을 비롯한 쓰레기들이다. 지나가는 사람이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즐겁게 한 잔하고 자리를 뜨면서 치우는 몫은 바로 술을 마신 사람이 되어야 한다. 생활의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들 의식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다. 마치 잠깐 들른 나그네가 필요로 해서 이용은 했지만 주인이 가지는 아끼고 책임지는 자세와는 달리 별다른 애정이 없는 모습이다.

교정 곳곳을 나의 배움터로 여기고 주인된 자세를 갖는 것은 작은 생활 속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외대를 가꾸고 사랑하는 일은 청소하는 아저씨들의 일이 아니고 외대인 전체의 일이기 때문이다. 최근에 아침 일찍 술병과 쓰레기를 치우던 아저씨는 "학생들 맨날 하는게 똑같으니. 자기가 한 일에 뒷끝을 야무지게 마무리 하는 걸 못본다니 원"하며 혼잣말을 내뱉었다. 외대인 모두의 생활공간으로 지키려는 주인된 마음이 아쉽다.

이옥선기자

"마당발"

한걸음을 내딛더라도
세계로 큰 걸음을 걷는 삼양그룹!

많은 기업들이 세계화를 외칠 때 삼양그룹은 밖으로 목소리를 높이지는 않았지만 안에서부터 조용히 세계화를 실천해 왔습니다.
먼저 사원들이 세계화 되어야 삼양그룹이 세계화 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다양한 인재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래 삼양의 경영자를 키우는 Future Leader 교육, 세계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양성하는 Global Manager 교육, 1년 동안 자신이 스스로 연구테마를 설정하고 공부함으로써 현지적응을 추구하는 海外파견제도-
삼양은 젊은 인재들의 패기와 정열을 바탕으로,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세계 각국을 무대로 뛰는 마당발이 되고자 합니다.

Future Leader, Global Manager 교육 및 해외파견제도는
세계화를 준비하는 삼양그룹의 사원 국제화 프로그램입니다.

- 사업영역: 화섬, 식품, 사료, 화성, 금융, 무역, 기계, 환경, 정보통신, 텍스타일, 의약
- 해외활동: 미국, 독일, 일본, 홍콩, 베트남, 아르헨티나 등 해외 각지의 지사를 통해 수출입 업무를 강화하는 한편, 해외지점망 확대에 주력

삼양그룹
삼양사, 삼양중기, 선일포도당, 삼남석유화학, 삼양화성, 신한제분
삼양종합금융, 삼양메디케어, SY텍스타일, 삼양텍스, 삼양데이타시스템

□ 부활하는 세계민족예술축전 제기배경

외대의 전통으로 다시서는 세민제로

◇오는 10월 6일 열릴 '95 세민제는 외대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세계 각지역에 대한 정치 · 경제 · 문화에 대한 이해의 장을 마련하는 발판으로 21C외대의 미래와 가능성을 보여줄 것이다.

'40년 외대, 화려한 전통의 복원'이라는 취지 하에 오는 10월 6일 학내에서 개최될 '세계민속예술제전'(세민제)이 한창 준비되고 있다. 외대의 특색을 잘 살린 범시민적인 행사였던 세민제가 다시 제기되는 배경과 의의는 네가지 정도로 꼽을 수 있다.

첫째, 교육개방을 앞두고 각 대학이 앞다투어 나서고 있는 대학발전 안 속에서 21세기 외대발전의 가능성과 미래상을 전 외대인이 하나가 되어 외대의 특색을 뚜렷히 살릴 수 있는 세민제를 외대의 자랑스런 전통으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현재 각 과 예술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고 각 패별 연합체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83년 제 7회로 막을 내린 세민제 이후 그나마 외대의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각 과에서 개최하는 예술제이다. 예술제 공간을 통해 그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문학 예술적 재부를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의 질적 변화가 절실함에도 과거의 내용 답습하고 있는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다. 물론 각 과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예술제 안에 영화제나 풍물 도서전시 등을 함께 진행하려는 시도도 되고 있지만 아직은 역부족이다. 예술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민속춤의 경우 그 나라에서는 변해 새로운 모습인 경우가 허다하다는 지적이다.

셋째, 학술제와의 연대이다. 현재 개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학술제를 세민제와 하나로 묶어내는 일이다. 춤이나 원어 노래만으로는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폭넓게 이해하는 데에 따르는 무리를 그 지역에서 시기성을 띄는 주제와 함께 진행된다면 외대의 색깔을 '뚜렷히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넷째, 이문 왕산의 연대라는 지점이다. 이문보다 먼저 세민제의 중요성이 제기돼 지난 92년, 94년 두번에 걸쳐 세민전을 개최한 왕산과 함께 그간의 성과를 교류하고(유사과가 많은 점) 더 깊이 있고 내용적으로 폭넓은 하나의 세민제를 개최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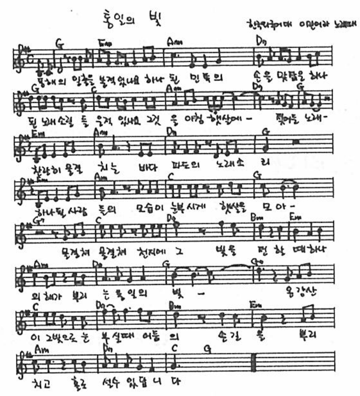
새롭게 부활하는 세민제의 의의를 이번에 한꺼번에 다 이루기는 힘들다. 이와 관련해 세민제 준비위 집행위원장 김준우(서양서반아 3)군은 "이번 세민제는 '화려한 전통의 복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세민제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외대의 전통으로 우뚝서기 위해서는 넓고 길게 바라봐야 하죠. 다양한 참여의 폭과 과거 세민제가 지녔던 한계 극복의 문제가 나서고 있다"라고 밝혔다.

앞으로 풀어나가야 과제는 전통의 복원과 함께 84년 세민제가 단명하게 되었던 원인-비언어계열의 소외, 진부한 내용, 무리한 행사규모와 연습과정-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다. 이와 함께 예술제와의 차별성을 두는 문제도 있다. 한편 보다 많은 참여를 위해 '세계풍물사진전'이 기획되고 있다.

고병권 기자

□ 이란어과 노래패 '소리'의 '통일의 빛'

하나된 마음이 '통일의 빛'을 만듭니다



제 6차 범청학련행사중에 열린 '통일노래 한마당(통노하안)'에서 이란어과 노래패 '소리'의 창작곡 '통일의 벗'이 통일원년상을 차지했다.

"이번 통노한이 처음있는 공식적인 행사였어요. 94학번 2명과 95학번 4명이 고작이고,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상을 타게 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죠"라며 이란어과 노래패 대표 박종운(서양·이란어 2)군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노래를 함께 준비한 보람이 있었다고 한다.

"지금까지는 과내 행사가 있을때만 반짝하고 모여서 연습하고 공연을 해서 그 모임이 지속적이지 못했죠. 하지만 이번 노래는 좀 달랐어요. 통노한을 준비하는 저희들의 마음가짐은 바로 통일이었죠. 모두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가사를 만드는데서 부터 노래의 화음을 맞추는데까지 모든 것을 함께 했으니까 말이죠"라며 그는 '통일의 빛'을 만들고 연습하기 위해 방학중에도 학교에 나와 땀흘린 것이 가장 큰 보람이라고 덧붙인다.

"지금까지는 일시적인 모임으로만 그쳤던 과 노래패가 이제는 통노한을 계기로 동고동락해서 그런지 단원들끼리의 결속력이 강해졌고, 지금은 노래패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늘어나 2학기는 물론 다음해를 준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흐뭇해 한다.

그들의 노래 '통일의 빛'을 준비하는 데는 적잖은 땀이 들어갔다. 박미경(서양·이란어 2)양에 의해 만들어진 가사는 노래패 단원들이 검토하고 또 다시 팀장의 손을 거쳐 마지막으로 박미경양이 다시 다듬은 다음에야 비로소 마디마디에 가락이 정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통일의 빛을 준비하며 밝은 내용의 희망을 놓고 싶다는게 저희들의 바램이었어요. 함께 흥이나서 춤출 수 있는 노래, 그런 노래가 진정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노래가 아닌가 해요"라며 이번 노래의 의의를 밝혔다.

김태형 기자

외대인이 외대인에게

그림냄새와 함께 하는 작은 여유

인사동 화랑 '그림사랑'

정 준 원
〈사회 · 경정 3〉

음악과 그림을 사랑하는 이들은 많다. 그러나 정보의 부재로 아름다운 것들을 놓치는 이들도 많다.

연인을 만나도 갈 곳이 없어 카페와 소주방을 찾아 헤매는 안타까움 속에 산다. 여기 외대인에게 작은 하루를 보낼 여유를 제안한다.

자! 그럼 지하철 표를 사자. 종각이나 종로3가 역에서 일단 내려보자. 아무 사람에게나 따뜻한 미소로 묻자. "저 인사동이 어딥니까?" 실패하면 또 묻자.

파고다 공원 모퉁이를 돌아서 쭈욱 내려가면 거기가 인사동, 만일 배가 고프다면 잠시 걸음을 멈추고 포장마차에서 튀김만두와 알감자로 시장기를 잠재우자. 소화도 시킬 겸 천천히 걸으며 인사동의 상점과 그림냄새를 맡아보자.

오른편 인도로 걸어가다보면 '옛찻집'이라는 작은 간판을 볼 수 있다. (푯말이 매우 작으므로 유심히 찾을 것!) 가야금과 퉁소 소리와 한국적인 방석 찻집.

옛찻집의 환상적인 것은 '새'! 수많은 종류의 새들이 당신의 머리위를 찻잔 위를 날으며 날개 자랑을 해댄다. (새똥 조심!)

자! 이제 전통차로 목을 축였으면 그림 구경을 나서보자. 당신이 이번 그림 나들이가 처음이라면 이렇게 하자. 그림 관람은 오른쪽부터, 2-3m 거리를 두고 작가의 냄새를 느끼자. 관람 후 작가에게 따뜻한 미소와 존경을 보이는 것도 좋을 듯.....

다리가 아파지기 시작하면 투정대는 연인이나 친구를 위해 작은 선물을 사자. 예인 공방은 도자기 인형, 목걸이, 기타 등등이 작고 아름다운 예술작품으로 가득하다. (낭비벽이 심한 분들은 요주의!) 실내에서 정숙하시길(모든 상품들은 수공예로 하나하나가 작품이므로 존경을 보이자)

해가 지기 시작하면, 자! 이제 경인으로 가서 저녁 노을 속에서 차한잔과 그림 감상을 하자. 경인 화랑은 전통깊은 곳으로 많은 전시회와 찻집이 함께 한다. 야외 돌탁자에서의 노을감상과 차한잔을 마음의 부유를 만들 것이다. 어떻게, 하루가 의미있게 지날 거라 느끼지 않으신지.....

물론 술 그리운 이들을 위해 마지막 코스가 있다. YMCA 뒷골목, 오래 전부터 선배 대학인의 정열과 젊음이 깊게 느껴지는 곳, 한국의 산 역사와 공존하며 삶을 논하던 곳, 빈대떡과 탁주 한 사발로 목을 축여보시는 것도 좋을 법….

문화단신

왕 산

그림사랑 민족통일 염원담은 바닥그림 그려

만화 판화동아리 '그림사랑'이 지난 1일(금), 학생회관 진입로에 바닥그림을 완성시켰다. '민족통일'이라는 주제로 하나된 민족의 중흥을 표현한 그림이다.

한편 이후 왕산체전때는 왕산인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동그림을 그릴 계획이라고 한다.

연결 정기공연 '홍동지는 살아있다'

연극동아리 '연결'이 오는 13일(수)부터 15일(금)까지 자연대 대강당세서 10주년 기념 공연을 열 예정이다. 이번 작품 '홍동지는 살아있다'(작 김광림 연출 임형수, 기획 김시형)는 홍동지라는 한 인물의 일대기를 통해 인간 세상사의 단면과 역사의 순환성을 보여 주는 내용이다. 오는 10월 26일 부터 열릴 대학연극제에 출품할 이번 작품은 연결의 창작극으로 오는 14일 연극협회에서 심사를 한다고 한다.

이 문

외대연극회 정기공연 '29인가 30인가' 공연

외대연극회는 오는 14일(목)부터 16일(토)까지 제51회 정기공연 '29는 30인가'(작 연출 손동희, 기획 천헌주)를 무대에 올린다. 소강당에서 진행될 이번 공연은 외대연극회의 창작작품으로 오는 10월 26일 부터 29일까지 국립극장 소극장에서 열릴 제18회 대학연극제에 출품할 계획이다.

이 작품은 수감번호가 30인 80년대를 치열하게 살았던 한 운동권 청년과 장기수 할아버지 29의 만남을 통해 당대에 충실하게 살았지만 사회의 변화속에 잊혀지고 소외된 사람들의 삶을 그리고 있다.

교도소라는 공간에서 29와 30의 과거회상은 결국은 이들의 삶의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닌 하나임을 보여준다.

제7회 러시아예술제 열려

지난 1일(금)과 2일(토) 대강당에서는 '러시아예술제'가 열렸다. 이번 예술제는 원어연극(연출 김용현), 노래패 브 나로드의 '우정의 밤'등 민중가요를 비롯해 뿌쉬낀 '겨울아침'등 시낭송, 원어노래패 깔빠니아의 '백학' '나는 모스크바를 걷는다'등의 민요가 선보였다.

한편 '정치 경제 변화에 따른 여성의 지위변화'라는 주제로 학술제가 오는 14일(목), 10월 11일-12일에는 '전함포템킨' 등의 작품이 선보일 영화제가 열릴 예정이다.

베트남 국립가무단 초청공연 개최

베트남 국립가무단의 공연이 지난 8월 30일(수)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이는 베트남독립기념일을 맞이해 주한 베트남 대사관의 초청에 의해 개최됐다. 베트남의 전통문화를 읽을 수 있는 전통의상, 민속무용, 전통악기 연주등이 소개와 함께 우리 민요 '아리랑', 대중가요 '만남'이 곁들어져 학생들의 호응을 얻었다.

한 베트남 민족문화교류협의 회장을 맡고 있는 조재현 교수(동양 베트남)는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와 마찬가지로 광복 50주년을 맞는 베트남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는 바램을 밝혔다.

개강맞이 야외 영화제 있어

동양어대 학생회와 총학생회 공동주최로 지난 4일(월), 노천극장에서 개강맞이 야외영화제가 열렸다.

분교통폐합에 의해 사라지는 두밀리 분교 이야기를 담은 기록영화 '두밀리 새로운 학교가 열린다'(제작:서울영상집단)와 상영당시 가위질된 60분을 복원한 '신시네마 천국' 두편이 상영됐다.

우리말 속 일본말

〈7〉 땡깡친다

이 말은 간질(癎疾)과 뜻이 같은 한자어 전간의 일본음과 우리말 친다를 합한 것이다. 흔히 어떤 사람이 행패를 부릴 때나, 응석받이 어린애가 투정 할 때 쓰인다.

예) 애가, 너 자꾸 땡깡부릴래? → 애가, 너 자꾸 투정할래?

〈우리말 연구회〉

인류를 위한 미래기업, 유공

환경-관심에서 실천으로

미래개척-유공

앞선 기술로 뛰어야만 풍요로운 미래와 만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열어갈 보이지 않는 큰 힘 –
유공이 첨단 연구개발로 키워가고 있습니다.
첨단기술의 힘으로 유공이 미래에 도전합니다.
대덕기술원과 울산연구소, 미주 동부 R&D센터를 통해
미래형 대체에너지 개발 및 생물공학, 정밀화학,
그리고 환경 분야까지 사람과 미래를
이어주는 무한한 첨단기술을 펼쳐갑니다.
인간과 자연이 조화되는 풍요로운 미래를 위해
유공이 펼치는 환경보호 노력은 끝이 없습니다.
169명의 환경전문가, 89년부터 10년간 환경 하나만을
위해 쓰여지게 될 총 8천 3백억원의 환경투자비,
국내 최초로 수립한 종합환경관리 마스터플랜 등
환경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와 적극적인 연구개발로
유공은 독자적인 환경기술과 저공해 환경제품을 개발하여
자연과 조화되는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종합에너지·종합화학의 미래
주식회사 유공

SUNKYONG 鮮京그룹

□ 5·18 집회 경찰 과잉 폭력 진압

"경찰인가 조직폭력배인가"

무차별 폭력진압에 경찰청장 오히려 격려

"자판을 치는 저의 손은 떨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폭력은 직들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듯 했습니다. 16일(수) 잠충단 공원이 경찰의 무차별 폭력으로 아수라장이 되고 학생들은 경희대, 한양대등으로 쫄쫄이 흩어졌습니다. 제가 있던 한양대는 저녁 9시경 씨이렌 소리와 함께 전경들이 쏜 최루탄으로 숨이 막히는 듯 했고 부상자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단국대학 2학년생인 한 학생이 눈에 직격탄을 맞아 실명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17일 수술을 한다고 했는데 저녁뉴스를 들어보니 시력을 회복하기가 어렵다고 하더군요....."

(천리안 게시판 인용)

지난 8월 16일(수) 잠충공원에서는 경찰 병력이 사전 경고도 없이 최루탄을 쏘며 대회장에 난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연단을 점거하고 집회에 참석한 학생, 시민들에게 곤봉을 마구 휘둘렀으며 이 과정에서 취재기자 4명이 폭행당하고 그 중 중앙일보사의 장문기 기자가 실신, 병원으로 후송됐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원은영(사범·독교 4)씨는 "공식 집회허가를 받은 합법적인 평화집회를 어떻게 이런식으로 진압할 수 있는가"라며 분노를 감추지 않았으며 일간지들도 기자들이 다친 사실을 중점으로 이날 집회에 대해 예외적으로 경찰을 비판하고 나섰다.

경찰은 이날 집회를 마치고 한양대에 집결한 학생들에게 무차별로 최루탄을 난사하며 진압하던 중 장원호군(단국대·경영 2)이 직격탄에 맞아 실명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또한 지난 8월 7일(월) 안산에서는 대시민선전을 하던 70여명의 학생들이 안산경찰서 소속 1백여명의 경찰들로부터 완전포위돼 최루액 가스(일명 칙칙이)를 맞고 온몸에 피부염과 화상을 입어 집단으로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안산경찰서는 피해보상 문제를 위해 안산서를 항의방문한 김성환(서울대·농업토목 2), 유대광(경기대·경제 3)군 등 부상학생들에게 다시 최루액가스를 살포해 2차 화상을 입힌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안산경찰서는 이에 대해 "우리는 안전수칙을 지켰으며 학생들의 피부질환은 땀을 흘리고 씻지 않아서 생긴 것이다"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입원중인 학생들의 치료를 맡은 안산 희망병원의 이재광의사는 "말도 안된다"고 일축하며 "온몸에 주먹만한 수포가 생기고 화상을 입은 것처럼 피부가 짓물개지는 현상까지 나타났는데 씻지 않아서 생겼다고 얘기하는 것은 억지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8월 19일(토) 2기동대 23중대 소속 의경들이 기자 폭행에 가담한 사실을 밝히내 관련 의경 6명을 구속하고 현장지휘자 5명을 지휘 책임을 물어 징계위에 회부했다. 안병욱 서울경찰청장은 그에 앞서 장문기 기자가 입원한 삼성병원과 중앙일보 편집국을 방문해 폭행을 사과했다.

그러나 경찰은 한 대학생의 한쪽 눈을 실명케 하고 십수명의 여학생에게 흉터가 남는 화상을 입힌 대형사고에 대해서는 눈한번 깜박 안하는 대조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직격탄을 쏘는 장면과 직격탄의 '불꽃이 궤적을 그리며 어둠을 가르는 장면이 학생들의 비디오에 찍혀 8월 19일(토) MBC뉴스에 까지 방영됐으나 장원호군을 실명케 한 직격탄 발사여부에 대해서는 함구나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

시위를 지켜보던 한 5·18유가족은 "너희는 누구편이냐, 너희도 똑같은 학살자다"라고 경찰들의 폭력진압을 비난하며 "국민들의 안전을 외면한 채 오히려 정권의 이익만을 옹호하는 경찰은 신뢰할수 없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밝혔다.

한편 8월 17일(목) 박일룡 경찰청장은 폭력진압으로 불의를 빚고 있는 5·18 관련 집회 진압에 대해 "이번 집회에서 시위진압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치하하면서 "앞으로도 각종 집단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줄것을 당부한다" 고 격려하는 전언을 일선 경찰서에 보낸 것으로 알려져 시민단체와 학생들의 반발을 샀다.

박병수 기자

5·18책임자 처벌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경찰의 폭력성도 갈수록 더해간다.

"한국의 최루가스는 독가스다"

미국 의회청문회 보고서 지적

하버드대 폴 에프스타인 박사등 미의료 전문가 5명은 인권보호 차원에서 한국에 시위가 한창이던 87년 7월 11일에서 18일까지 한국을 방문, 현장조사를 통해 최루탄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한국정부 및 의료당국 등 여러 관계당사자들을 상대로 직접조사, 15페이지에 달하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에서 내린 결론은 "최루가스는 독가스에 속하는 화학물질이다"였다.

메사추세츠공대(MIT)에 의뢰한 성분 분석 시험을 통해 한국에서 무차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최루가스가 폐렴, 폐질환 및 호흡기, 심장, 간장 등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물질이라고 결론지었다.

또한 '직격탄'이라고 불리는 SY-44는 군사작전시 쓰이는 무기로 실명등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사 회 단 신

장애인 발가벗겨 고문...인권 유린

경찰이 방어력이 없는 장애인들을 불법연행, 가혹한 고문을 자행한 것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6일(토) 장애인 노점상 13명이 철거 중단과 차별단속 중지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하던 중 경찰에 의해 집기와 물건이 파손되고 이 중 5명이 성동경찰서로 연행되어 발가벗긴 채 고문을 당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연행된 노점상들이 모두 부상을 입었으며 특히 박영생씨의 경우 온 몸에 멍이 들고 이가 부러지는 등 심한 부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이와 관련 '장애인노점상자립추진위원회'(잠자추) 소속 장애인과 노점상 60여명은 26일(토) 오후 성동경찰서를 찾아가 발생농성을 하며 '연행자 석방'을 요구하고 이들이 자행한 노점상들에 대한 가혹한 고문에 법적 대응을 할 것을 밝혔다. 잠자추는 이번 일을 '범죄적 인권유린 행위'라고 간주, 고문을 가한 형사들의 명단을 입수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다시 이는 학생검거 열풍

서울시 경찰청이 지난달 24일(목) 새벽 서울대 졸업생을 포함한 13명을 연행, 조사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검찰측은 "이들이 '학생사회주의 기간대오'라는 조직을 건설, 학생운동을 배후조종하고 노·학연대 투쟁을 벌이며 사회주의 건설을 강령으로 삼아왔다는 증거를 입수했다"며 "국가보안법에 의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성균관대를 비롯한 서울 북부지역총학생회연합(북부총련) 각 대학에서는 '학생운동탄압 분쇄와 구속학우 구출투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구성하고 서명운동과 선전전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 공대위 소속 학생 1백여명은 지난 28일(월) 오후 홍제역 부근에서 가두시위를 벌이고 대공분실로 항의 방문을 가기도 했으며 지난 9월 1일(금)에는 성신여대에서 북부총련 주최의 집회가 개최되어 구속학생 석방을 촉구했다.

상지대 민주총장 전격 해임

상지대가 민주총장을 맞은 지 두돌만에 위기를 겪고 있다.

상지대 임시재단위원회는 지난 30일(수) 재단이사장실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현 김찬국총장을 해임할 것을 결의했다. 징계위원회는 "김총장이 교육부의 감사에서 지도감독의 책임을 물어 경징계를 요청한 것과 학생들을 선동하여 이사회 개최를 방해하고 교육부 면담을 통해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징계사유를 밝혔다.

김찬국 총장은 지난 93년 8월에 김문기 전 이사장이 재단비리와 땅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후 교수협의회와 학생들의 서명을 받아 상지대 총장으로 부임했다. 그러나 지난 8월 15일(화) 정부의 사면조치로 김이사장이 사면복권되어 재단재산을 되찾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재단복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번 김총장 해임 역시 그러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상지대 총학생회는 "92년 상지학원 정상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으로 학교 구성원의 지지를 받는 민주적인 총장이 선출된 것인데 김총장을 해임한다는 것은 징계위원회가 재단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라고 밝히고 "비리와 부정투성이였던 재단이사장이 학교로 돌아오려는 음모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라며 의지를 표명했다.

총학생회는 지난 31일(목)에는 재단이사회의 결정에 대한 규탄집회를 열었다. 교수협의회측도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으나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남부저유소 건설 반대집회 열려

「남부저유소 성남시 분당 건설 반대 제2차 시민대회」가 약6백여명의 성남시민·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달 26일(토) 분당 중앙공원에서 열렸다. 최근 성남시에는 약 27만평에 약 2백만 배럴의 기름을 저장할 수 있는 규모의 저유소를 건설중에 있다.

하지만 그 규모가 장충체육관의 41배에 달해 사고 발생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런 시설에 대해 정부는 안전성에 대한 어떠한 정밀한 검토와 국민들에 대한 동의없이 철거반과 경찰, 심지어 깡패까지 동원해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성남시민뿐 아니라 인근 도시, 주민들에게까지 반발을 사고 있다. 본교 용인캠퍼스 학우 일백여명이 시민대회에 참가 하였고 이후에 있을 저유소건설 반대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 대학교수들의 5·18 기소촉구 서명운동

교수 집단행동 4·19이후 최대 규모

본교 교수, 1백6인 5·18성명 발표

지난 8월 7일(월) 본교 1백6명의 교수가 검찰의 5·18 불기소 처분 관결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검찰의 기소권 포기 규탄', '특별검사제 도입', '공소시효에 대한 헌법소원 인정', '4천억 정치 비자금의 진상 조사' 등을 골자로 한 이 성명서는 검찰의 공소권 포기를 위헌으로 결정짓고 정부·검찰의 올바른 대응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교수들의 집단 성명서 발표는 본교만의 일이 아니다. 7월 31일(월) 고려대 교수 1백 31명이 이 문제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한 이후 전국으로 확산돼 8월말까지 82개 대학 총 4천 89명의 교수가 규탄 성명서 발표에 동참했으며 집회 등의 구체적 대응을 하고 있다.

현재는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 협의회'(민교협)를 중심으로 '전국 서명교수 대표자 모임'이 만들어져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헌법과괴적 범죄 등의 공소시효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입법청원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앞으로 이 모임은 더욱 강화되어 국민을 상대로 홍보하고 국회를 강제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5·18 불기소 처분 관결에 대한 교수들의 이러한 집단 연대 움직임은 60년 419 이후 최대 규모로 대학교수들 뿐만 아니라 스님, 연극인, 문인, 초·중·고 교사들 등 각계 각층으로 번지고 있어 범 시민운동으로 파급될 조짐이 일고 있다.

이에 본보에서는 성명서 발표를 한 본교 교수 대표분을 만나 보았다.

□ 5·18성명발표한 교수대표 남성우교수를 만나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말도 안되는 소리다"

-어떤 계기로 서명운동을 벌이고 성명발표를 하게 됐습니까

"검찰의 불기소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래서 대학교수들이 5·18의 진정한 역사적 규명을 위해 관련자들의 처벌을 위해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었다."

-이번 일 이외에도 본교 교수들이 집단행동을 한 선례가 있습니까

"5·6공 당시 많은 외대 교수들이 민주화를 위해 정부에 대항해 투쟁했었다. 당시 교수들의 협의체도 없었던 상태에서도 많은 교수들이 서명 운동, 시위 등의 방법으로 사회운동에 참가했었다. 지금의 교수협의회도 당시의 투쟁으로 생겨난 성과물이라 할 수 있다"

-교수들만의 단순한 성명발표가 아닌 적극적인 활동이나 학생이나 타 대학 교수들과 연대할 계획 등은 가지고 있습니까

"곧 조직화될 '전국 서명인 교수 대표 모임'이 생겨나면 동참하는 등 현실적 상황에서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현 김영삼정부의 8·15대사면과 4천억 정치비자금 수사, 개혁 후퇴성 정국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8·15 대사면은 누구나가 생각하듯이 기만적인 행위라 생각한다. 또한 전 서석재의원의 4천억 정치비자금 조사가 '근거없음'이라고 종결된것 등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

-학내에서도 이러한 비민주적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번 일처럼 교수들이 집단적으로 여론을 주도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학내 구석 구석에 사소한 잘못들이 존재하겠지만 그 모든 일에 교수들이 나서서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 정도가 상당한 것이라면 교수들이 집단적으로 일어설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그리고 만약 학내에 비민주적이거나 퇴보한 부분이 있다면 교수협의회를 중심으로 교수들이 힘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이 학내 민주화를 위해서 우리 교수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면 공식 문서를 통해 질의하면 곧 교수평의회를 소집해 교수들의 인지를 모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각자 서로의 위치에서 5·18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위해 노력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요구는 실현될 것이다.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겠다."

고병권 기자

5·18 끝없는 외침

우리는 그들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법으로는 그것이 아니랍니다

법.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5·18 성명서

'특별법 제정', '특별검사제 도입', '공소시효에 대한 헌법소원 인정', '4천억 정치 비자금의 진상 조사' 등 검찰의 공소권 포기를 위헌으로 결정짓고 정부 검찰의 올바른 대응을 촉구한다.

우리는 검찰의 공소권 포기 결정이 위헌임을 명백히 밝히는 바이다. 분명 5·18책임자들은 처벌돼야 하며 지금의 검찰로는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없기에 아래의 내용을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특별법을 제정하라.

둘째,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라.

셋째, 공소시효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라.

넷째, 4천억 정치 비자금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

민족자주언론

외대학보

통일잔치 올해의 8·15민족공동행사는 준비과정에서의 많은 잡음과 시행착오에도 불구, 대중적 참여를 확산시켰다는 성과를 남겼다. 사진은 지난 8월 13일(일) 보라매공원에서 열린 민족공동행사 장면이다.

□ 8·15민족공동행사의 성과와 한계

함께 하는 발전의 몸부림

기존의 성과가 이끌어낸 공감된 통일운동

해방 50주년을 맞는 통일원년 95. 민간통일운동세력은 올해를 통일로 가는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만들어 보고자 많은 고민을 하였다. 결국 대다수의 민간통일운동세력이 '8·15 50주년 민족공동행사'(민족공동행사)를 개최하였다. 민족공동행사는 지난달 초부터 각 지역별 통일행사로 시작되었고 지난달 12일(토) 명동성당에서 있었던 개막식, 14일(월) 보라매 공원에서 진행되었던 전야제, 15일(화) 서울대에서 열린 민족대토론회를 통해 총화되었다.

대중적이지 못한 통일운동. 아무도 민족공동행사가 그러한 반성에서 출발했음을 부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민족공동행사가 '대중적이었는가, 아닌가'는 중요한 관심사다. 자주민주통일 민족회의 집계에 따르면 1백10여 단체가 민족공동행사에 참여했고 이는 작년의 2배 수준이다. 주목할 것은 노동자들의 민노총(민주노조총연맹 준비위원회) 이름 아래 노동조합 차원으로 참여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노동운동 활동가를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참여하던 노동자들이 조직적 참여는 질적인 발전을 의미한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또한 홍진표(민족공동행사 남측준비위원회)부대변인은 "성남에서는 동 차원으로 통일 기행을 기획했는데 5백여명이 참여했고 대전의 경우 시장이 지역행사에 참여하는 등 지역 통일운동이 대단히 활성화 되었다"라며 보이지 않는 성과를 지적하였다.

범민련 남측본부측은 대회 전 대중성 강화가 그간의 범민족대회를 통해 얻어진 정치적 성과들을 계승하지 못한다는 우려를 했다. 그러나 정치적인 주장들이 희석화 되거나 합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민족대토론회에서 통일의 원칙, 한반도 평화실현 문제, 통일을 저해하는 제반 법적·제도적 장치 철폐, 통일방안 등이 토론되었고 이는 그간 통일운동의 성과를 계승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홍진표씨는 "오히려 토론과정에서 보다 내용을 풍부하게하고 대중적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민족공동행사 남측준비위는 지난 7월 북경에서 열린 남,북,해외 실무 접촉 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남,북,해외 공동 명의로 '7천만 동포에게 드리는 글'을 발표하였다. 민족공동행사 남측준비위는 이를 통해 '자주·민주·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이 민족통일의 변함없는 원칙이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종원(한총협 정책위원회)위원장은 "비록 북, 해외와 내용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동일한 기조를 취했다"라며 "남,북,해외가 민족공동행사를 함께 치뤄내면서 이번 대회가 범민족적인 행사임을 증명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족공동행사 남측준비위측과 범민련 남측본부가 '제6차 범민족대회' 개최 여를 놓고 이견차를 좁이지 못한 점은 한계로 평가받고 있다. 김종원씨는 "민족공동행사 남측준비위로 대표되는 통일운동의 새로운 흐름과 범민련이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이하 범청학련 남측본부)는 이혜정(가톨릭대 성심교정·회계학과 2)양과 정민주(인천대·건축학과 4)양을 범청학련 남측본부 중앙위원 자격으로 북에 파견하였다. 이는 통일원년으로 불리는 올해 범청학련 차원에서 남북의 실질적인 만남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 한총련의 강한 의지 표시로 풀이되고 있다.

〈사회부〉

방북학생, 북 대학 두루 방문

단군릉 답사투쟁 실질대표 역할도

한총련의 결정으로 방북하게 된 정민주(인천교대 92학번), 이혜정(가톨릭대 성심교정 94학번) 범청학련 남측본부대표는 8월 14일(월) 평양에 도착하였다. 이들은 15일부터 17일까지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하였고, 범청학련 제 1차 중앙위원회에 남측대표자격을 갖고 참석하여 공동합의문에 서명하였다.

정민주·이혜정대표는 함께 방북한 최정남대표(범청학련 공동사무국장)와 함께 북의 대학들을 방문하여 대학생들을 만나고 교류를 가질 것이다. 또한 두대표는 10월 3일로 계획하고 있는 자주교류투쟁과 단군릉답사투쟁의 실질적인 대표역할도 하게 된다. 그 이후 최정남대표를 제외한 두 대표는 관문점을 통해 남으로 귀환할 것이다.

마학번 이혜정양이 보내온 글

8월13일

약 10시간 후면 그렇게도 가보고 싶었던, 아니 가필코 가야만 하는 곳에 가게 된다. 어릴적에 굶주림에 허덕이고 뿔달린 사람들이 살고 있다던 -- 무섭게만 생각했던 그 곳!

이미 세번에 걸쳐 선배들이 방북하셨고 그길에 나와 민주언니가 그 네번째 깃발을 들고 이곳까지 왔다. 어릴적 받았던 반공반북교육의 '약질'후유증인지 (?) 북녘의 동포들이 무척이나(궁금하게) 보고 싶다.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8월14일

비행기에 내려 우리를 환영해 주는 평양 시민들의 모습을 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통일에 대한 열망과 뜨거운 동포애가 어려 있었다.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북녘의 동포들을 만나니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길이 없었다.

50년 이별했지만 남과 북, 해외에 상관없이 말이 통한다는 이유만으로 난 '민족'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공항에서 '김일성 경기장'으로 향하면서 난 그제서야 가슴이 설레임을 느꼈다. 북녘동포들의 기대에 찬 눈빛이 보이는 듯 했고 어제 벌써 8·15민족공동행사를 시작했을 우리 남녘의 백만학도들의 통일열기를 어떻게 잘 전할 수 있을까 생각했다.

만나는 사람 한명 한명이 모두 너무들 순박하고 남쪽에 살고 있는 우리와 다른 것이 하나도 없었다.

8월15일

우리는 민족통일대축전에 참석하기 위하여 새벽같이 일어나야 했다. 그 장소가 판문점이라는 사실이 날 긴장시키기도 했지만 남과 북, 해외의 한자리에 모두 같이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내 가슴은 설레였다. 판문점에서 일정이 모두 끝날 때까지 우리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 날 분노하게 만든 사람들이 있었다.

10m도 안되는 거리에서 우리를 살폈던 군인들, 양키들…

모든 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나의 기분은 그리 좋지 못했다. 판문점에서 함께 만나기로 했던 남녘의 우리 백만학도의 모습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고 다시 남녘땅과 멀어진다는 생각에 울고 싶은 심정뿐이다.

□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장 정태흥(고대 총학생회장)군을 만나

"통일을 하려면 만나야 한다는 건 당연하다"

한총련은 올해 안에 남북의 직접적 만남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2명의 대표를 북한에 보냈다. 방북직전 이혜정, 정태흥, 정민주(왼쪽부터 차례로) 세사람은 판문점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사진에 담았다.

-한총련 대표 방북이 있은 후 수배조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냈는가

=수배가 됐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다. 요즘은 상반기 한총련사업과 특히 8·15행사에 관한 평가작업으로 좀 더 바빴다.

-정민주, 이혜정 학생이 방북한 이유는 무엇인가

=올해는 해방 50년, 분단 반세기를 맞이하는 역사적인 해이다. 50이라는 숫자만으로 어떤 실질적인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50이라는 수치에 설레인다. 여기에 우연인지 몰라도 북미관계의 진전을 중심으로 한 냉전의 종식은 이곳 한반도에 평화통일의 분위기를 무르익게 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청년학도가 앞장 서 민족대단결의 문제를 들고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영웅주의라는 얘기도 하고 또 일부에서는 방북하는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는데

=정부의 8·15행사를 한번 보자. 정부는 광화문에서 아주 성대한 통일행사를 준비했다. 하지만 그것은 남한만의 반쪽짜리 행사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북과 해외동포들과 함께 해보려는 통일행사에 대해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탄압을 해왔다.

"통일을 하려면 만나야 한다"라는 명제는 너무도 당연하며 그것들을 막고 탄압하는 정권이야 말로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정권이 쌓아놓은 또 하나의 삼팔선을 무너뜨리는 것이 청년학생이 해야할 일이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방북의 의미는 크다고 본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러한 자주교류를 계속해서 해나갈 예정인가

=물론이다. 현재 나진·선봉지역을 중심으로한 경제특구와 단군릉 답사를 위한 방북대표단을 모집중에 있으며 최대한 합법적으로 추진한다는 원칙아래 통일원과 계속 접촉중에 있다.

-'통일운동의 대중화'라는 기치아래 지난 8월 15일 8·15민족공동행사가 열렸다. 그 대중화라는 목표가 과연 실현됐는가

=나름대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 잘 가단체만 보더라도 작년 범민족대회의 40여개 단체에서 1백40여개 단체로 대폭 늘어났다. 행사의 내용이나 형식에 있어서도 통일을 원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것으로 준비되었다고 생각된다.

작년 범민족대회가 엄청난 원천봉쇄와 행사장 침탈이라는 탄압을 받으며 치러졌던것에 비해 올해 행사가 보라매공원에서 순조롭게 치뤄질수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의 힘이 강해졌음을 알 수 있다.

〈고병권 기자〉

□제 5차 교육과정개정안의 배경과 기본 취지

전인교육이냐, 경쟁교육이냐

보편 · 다양 추구…학사관리 강화
엘리트 생산 중심…지역학 한발 주춤

대학당국에 의해 발표된 이번 교육과정개정안(개정안)은 본교 교육의 지향점을 교육내용적 측면에서 밝혔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 개정안의 내용에서 분석되는 지향점은 대략 △교양중심의 다양하고 보편적인 교육 추구 △경쟁을 통한 소수 엘리트 중심 교육 △학사 관리 강화 △지역학 도입 후퇴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또한 이 개정안은 현 정부가 발표한 '5·31 교육개혁안'을 대폭적으로 수용하고 있어 본교 교육의 방향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개정안은 총 이수학점의 1/4~1/6이상을 이수하면 전공으로 인정하는 최소전공 인정 학점제를 도입하여 복수전공의 기회를 학생들에게 부여하고 있다. 필수학점 최소화·선택학점 최대화로 다양한 선택이 가능토록 하고 복수전공 학점을 기존의 65~77학점에서 54학점으로 하향조정했다. 또한 6개 교양필수영역을 교양선택과 통합조정, '교양'으로 변경하여 과목수를 늘렸다.

이는 다전공이 가능토록 하고, 교양강화를 통해 다양한 과목을 수강토록 하여 폭넓은 보편적 지식을 습득하게 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쟁점의 가능성이 큰 '전과목 상대평가제'도입과 '어문계열의 전공월반제'시행 등은 경쟁을 통한 소수엘리트를 생산하겠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특히 상대평가제가 도입되면 수강인원의 40%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반드시 C°이하의 성적을 받게 되므로 학생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은 분명하다. 또한 실용영어 강좌도 배치검사 성적에 따른 분반제가 도입된다.

전반적인 분야에서 변화를 일으킬 교과과정 개편을 위해 학사제도가 정비된다. 복수전공체제를 위해 수업시간이 현 1주 40시간에서 55~60시간으로 연장돼 평일에는 08:00~18:50(11시간), 토요일에는 08:00~12:50(5시간)로 시간표가 짜여진다.

이외에도 학급당 수강인원 상한제가 도입돼 일정인원(실용영어 25~30명, 교양 80명) 초과시 분반된다. 타학과 교과목을 전공인정 교과목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 계절학기에도 전공과목 개설(20명 이상 신청시)이 가능하며, 상대평가로 인해 학점 경쟁뿐 아니라 학사경고및 제적자도 늘어날 전망이다.

변화하는 현 사회의 요구에 발맞춰 본교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는 지역학 도입은 이전보다 후퇴한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96년부터 서울 8학점, 용인 16학점씩을 개설키로 했던 이전의 입장에서 각각 6학점, 12학점 전공선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역학 도입을 위한 선결과제로 △지역학 전문인력 편중 해소 △학과 중심제 극복 △학제간 연구 분위기 조성을 꼽고 있다. 그러나 매번 지적됐듯이 지역학을 가르칠 교수가 매우 소수인 상황에서 지역학 전문 인력 강화를 위한 대안을 신규교수 대폭 충원이 아닌 "외국학종합연구센터의 준공을 통한 학제간 연구 활성화"라는 미봉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지역학 교과목의 정의도 "어문학 관련 교과목 이외의 전공교과목을 말한다"라고 함으로써 명확한 정의를 회피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할 여지를 비추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5·31 교육개혁안의 취지를 전폭적으로 수용했다고 연구위원회는 밝히고 있다. 교육개혁방안 중 "열린 교육을 지향한다"라는 명제아래 도입되는 △학점은행제 △학교의 평생교육기능 확대 △학교의 전·편입학 가능 △대학평가 및 재정지원 연계 강화 등 여러 시책은 본교 개정안이 밝힌 지향점과 그리 큰 차이가 없다.

본교 개정안은 다전공·복합학문 연구 가능을 위한 최소전공인정 학점제·학제간 상호 교류 활성화 등에서 드러나듯이 다양화를 추구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전인교육이 아닌 '경쟁을 통한 소수 엘리트 양성 교육'이 나타내듯이 본교를 질높은 교육이 아닌 일반교육의 장으로, 진정한 학문연구와 토론의 장이 아닌 경쟁이 상존하는 경기장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위험성도 공존하고 있다.

대학부

□대학당국 학자 답변안 분석과 방중 학자합의사항 이행 점검

구체적 대안 부재…'노력하겠다'식

동일사안에 대한 양캠 답변 틀려

교육환경·교육내용·교육재정에 대한 대학당국의 답변이 구체적인 대안모색보다는 무성의로 일관돼 있고, 합의한 사항조차 약속된 날짜에 이행되지 못하는 등 이에 대한 대학당국의 성실한 태도가 요구된다.

대학당국은 지난 6월 12일(월) 학생측의 요구사안에 대한 협의 내용 중에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공문을 학생회측에 발송했다. 현재까지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용인 △컴퓨터 2학기중 각과 지급 완료 △인문사회대·교양관 열람실 북도쪽 창문 방음 2중창 9월중 설치 △위성방송설비·교내통신망구축을 위한 공사진행중 △체육교외수업 실제가로 인하 △도서관에 에어콘 2대, 공기청정기 8대 설치 △어문관 영사실 극장식 의자설치 △소각장설치 진행중 △공중전화 4대 설치 공사 △9월중 어문관 식관 교체 의자 탁자 보강 △사운드리이브러리 오후 8시까지 연장운영

- 서울 △도서관·열람실 지하 공기청정기 설치 △사회과학관 세미나실·비품 설치 △고장난 환풍기 교체

한편, 대학당국은 지역학 전공 교수확충 방안에 대해서 "확충하도록 노력하겠다", 외국대학들과의 지역학 정보교류 추진부분에서는 "적극 추진하겠다" 등 교육내용에서 구체적인 대안제시가 아닌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대학당국은 지난학기 강의평가제가 전임교수 40.5%, 강사 27.1%의 저조한 실시율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면실시되고 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 용인캠퍼스 부총학생회장 임성은(동학·아랍) 4)군은 "현재 일부 실시되고 있는 강의평가제의 결과가 학생측에게 공개되지 않음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수강신청자 80명 이상일때 분반하자는 학생회측의 요구에 대해 양캠퍼스 답변이 상이하게 드러났다. 서울캠퍼스 경우 "점차적으로 줄여서 97년까지 30명선으로 만들겠다"라고 답변한 반면 용인은 "강사선정 및 강의시간배정 등의 단점으로 실시가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학 당국은 연도별 도서관 장서확보를 위한 계획에서 96년까지 용인캠퍼스 장서부족분을 위한 특별예산 12억을 책정했다. 또한 용인캠퍼스의 공동화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학기부터 신입교수 연구실(서울·용인 중복학과)을 용인캠퍼스에 배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용인캠퍼스 총학생회장 정석민(동학·마인어 4)군은 "양캠퍼스 단일화 교수체제는 담당교수 및 강의시간을 임의로 변경하는 사태를 초래하는 등 폐해가 많다"라며 "용인캠퍼스 전임교수제를 하루빨리 추진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곽근영 기자

□제 5차 교육과정개정안의 구체적 내용

1. 목적

교육에서 모든 교육적 활동을 규율하는 특정한 형식을 교육과정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교육과정은 학교가 지향하는 교육적 활동의 모습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그리고 교육과정은 시·공간적으로 사회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대내적으로는 정치적 변혁, 경제발전, 기타 사회·문화의 변화 등이 영향을 미치고, 대외적으로는 국제 정치 질서와 경제 질서의 변화와 국가간의 문화교류 등이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이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는 교육과정의 변화를 초래하며, 어떤 양상을 띄고 변화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새로운 교육과정을 요청한다.

본교는 이번에 교육과정을 새롭게 개정하여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21세기의 선진화를 주도하는 지도자적 인물을 길러내고자 한다.

2. 변천(생략)

3. 기본전제

1) 교육이념을 충실히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2) 변화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3) 국내외 대학간의 경쟁에서 비교 우위에 설 수 있어야 한다 4)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서 스스로 학습동기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5) 정부의 교육개혁안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4. 개정 내용과 운영

1) 개정의 원칙

(1) 졸업에 필요한 학점 140학점이상, 학기별 최대수강학점 20학점 (2) 최소전공 인정학점제(총 이수학점의 1/6~1/4)도입 (3) 필수학점 최소화, 선택학점 최대화 (4) 학과간 전공교과 학점교류 인정 (5) 전필 및 선수과목 제외한 선택교과목은 이수학기와 관계없이 선택 (6) 1개 학기 성적 평점 평균이 A°이상이면 조기졸업 가능, 학기 최대수강학점은 23학점

2) 교양

(1) 내용 : ①교필 및 필수선택인 국어작문, 한국사, 국민윤리, 제 2외국어, 한국학, 계열기초를 기존의 교양선택교과목에 통합, 명칭을 '교양' ②교과목당 이수학점 2~3학점, 총 24학점 ③이수방식은 선택

(2) 운영 : ①각 단대는 계열의 특성을 고려, 6학점 이내 선택교과목 지정가능 ②교양중 전공과 동일하거나 학과 및 단대에서 인정·지정한 교과목을 복수전공과목으로 인정 ③양캠퍼스에 모든 영역의 교과목 개설 원칙, 학년에 따라 영역구분 ④성적평가는 상대평가기준 철저준수(수강인원의 40%는 반드시 C+이하 평점) ⑤사전수강시 수강생 80명 이상이면 분반

3) 교양영어강독 및 제2영어의 개정

(1) 내용 : ①현행 교양영강독 및 언어실습, 제 2영어의 과목명을 '실용영어'로, 교책 교과목으로 규정 ②이수학점은 1학기 2학점(3시간), 총 8학점 공통필수로 1, 2학년 때 이수

(2) 운영 : ①수준을 4단계로 구분, 배치검사(placement test)결과의 등급에 따라 수강 ②배치검사는 1학년 신입생 대상 실시 ③입학후 매학기말 배치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④배치검사로 상위 단계에 합격하면 하위 단계의 해당학점과 소정의 평점부여 ⑤수강인원은 학급당 25~30명 ⑥내용 선정 및 수준, 교재개발, 강사자격 및 선발, 수업운영 등 모든 사항은 실용영어부에서 주관

4) 체육 : 종목 다양화 및 교양선택으로 변경, 2개학기/2학점/학점당 2시간

5) 교양특별강좌 : 하나의 주제에 관해 학제적 접근의 강좌 개설, 1인 혹은 다수의 교수가 강의, 2학점, 3·4학년 수강대상, 교무처와 교양학부 주관으로 캠퍼스별로 매학기 1~2개 강좌 개설

6) 외국어특별강좌 : 세계화에 부응하기 위해 외국어(주로 영어)로만 강의, 청취력과 독해력 향상 목적, 나머지는 교양특별강좌와 동일

7) 복수전공

(1) 내용 : ①복수전공 할 경우 입학시 지원학과는 제 1전공, 재학중 선택한 다른 전공은 제 2전공 ②캠퍼스에 설치된 학과에 한정 ③전공 학점 54학점으로 하향조정(어문, 인문·사회, 이학·공학계 동일)

(2) 운영 : ①각 학과 자율적으로 필수·선택교과목 결정, 전공필수 최소화 ②전공필수는 1·2학년 개설 원칙 ③2학년부터 시작, 신청은 1학년 2학기말 ④전공 교과목과 합반하여 수강 ⑤복수전공 변경 및 취소 가능

8) 부전공 : 전과 동일

9) 학점 배분 : 생략

10) 법학계-11) 교육계 : 생략

5. 학사제도의 정비

1) 시간표 작성 : 수업시간을 현행 1주 40시간에서 55~60시간으로 연장(평일:8시-18시50분 - 11시간, 토요일:8시-12시50분 - 5시간), 수업일수는 현행 17학기 16주 체제 유지

2) 학급당 수강인원 상한제(분반원칙) : 실용영어는 25~30명, 교양은 80명 초과하면 분반(국어작문은 40명 내외)

3) 어문계열 전공 월반제 : 강독, 문법, 작문, 회화 및 lab 교과목은 학과의 심사에 의해 상위 과정 수강가능, 심사대상은 희망자 또는 외국 장기거주 체류자, 심사시기는 학기말, 심사내용은 서류심사·면접·필기시험

4) 학점교류 : 학점교류는 학과장 승인하에 시행, 국내외 자매결연 및 교류협정 맺은 대학과 학점교류 권장(대상자는 2학기 이상 등록, 기간은 재학중 2개 학기, 성적기준 성적 평균이 3.00이상(학기당 기준학점 이수), 인정여부는 해당학과 교수회의에서 결정

5) 계절학기 : 교과목을 다양하게 개설, 전공교과목 개설가능(수강인원이 20명이상인 과목에 한정, 개설교과목은 학과장의 요청에 의해 교무처가 심의하여 결정)

6) 시험 및 성적평가 : 모든 강의에 대해 상대평가제(수강인원의 40%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반드시 C+이하 평점)도입, 교양과목에서 안 지켜질 경우 다음학기에 담당교과목의 강의외촉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제재 조치를 만든다

6. 지역학·지역학은 어떤 형태로든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

1) 제약조건 : 지역학 전문인력의 편중, 학부제 및 학군제가 아닌 학과 중심제, 학제간 연구분위기 미조성

2) 해결방안 : ①외국학종합연구센터의 준공으로 학제간 연구 활성화, 지역학 바탕 마련 ②전공선택의 폭을 넓히고, 대학 및 학과간 학점교류 활성화 ③지역학 관련 교과목을 동·서양어대엔 최소 6학점, 동·서양학대엔 최소 12학점을 전공선택으로 개설(지역학 관련 교과목이란 어문학 관련 교과목 이외의 전공교과목을 말함)

7. 학교의 지원과 후속조치

1) 적용 : 1996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단 1996년 이전 입학생으로서 복학후 잔여학기 6개 이상을 남기고 있는 휴학생은 새 교과과정에 따른다. 단 1996년 복학생은 잔여학기가 7개 학기 이상이어야

2) 학칙과 시행세칙 개정 : 새 교육과정을 위해 학교는 관련 학칙과 시행세칙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3) 영역별 교과목의 통합·조정·재구성 : 이번 2학기에 실용영어부(실용영어), 교양학부(교양), 해당대학 및 학과의 교수회의(전공)에서 주관한다.

간 큰 사람

○…문민정부, 뭐다 뭐다 해도, 국가보안법 부당하다 뭐다 떠든다고 그렇다고 정말 신문에 싣는 간 큰 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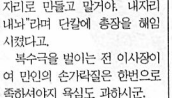
내 기사 짜르고, 나 알고 있는 것 말 못하게 했다고 그렇다고 그걸 또 신문만들어 배포하는 간 큰 여자. 그랬다고 간 큰 남자 두 여자 이무기·김무기 만들어 버리고.

우리 간 큰 외대인 더이상 간 떨게 하면 더이상 순에보는 없어 난- 널 그냥 떠나보낼 꺼야.

○…문민정부라고 민주총장 뽑았다고 경사났던 원주골 상지마을에 문민의 8·15대사면으로 들어온 탕아가 상지마을에 한바탕 태풍을 몰고왔다는데

사면 탕아 "이번엔 확실히 내 자리로 만들고 말거야, 내자리 내놔"라며 단합에 총장을 해임시켰다고.

복수극을 벌이는 전 이사장이여 민인의 손가락질은 한번으로 족하셔야지 욕심도 과하시군.



○…생기발랄해야 할 새내기가 시들시들(CDCD) 푸들푸들(FDFD) 두어께 쭉지가 축 늘어져 있다는데.

이유인 즉 올해부터 수강인원 중 40%의 학생이 C+이하를 받는다는 학칙에 새내기들 성적표가 'CDCD FDFD물결'로 가득차.

이에 한 휴산 왈 "또 한번 한국외국어고등학교입을 재확인"

-미래특파원 96년도 크로니클자-

○…5·18 학살자 기소처분 요구로 전국이 들끓고 있는 지금, "난 아니라고 봐"라면서 대담하게 시대의 조류를 역행하는 스승님이 우리 외대에 있다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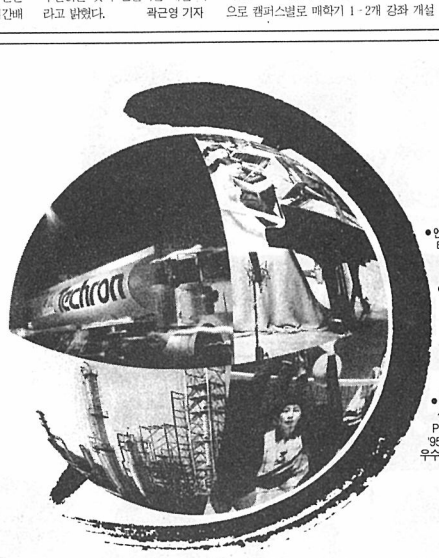
검찰이 "군인이 먼저 쐈다"라고 하면 "군인들이 먼저 총을 쐈겠나? 정당방위로 쐈겠지"하면서 검찰발표까지 우습게 여기는 자존심을 후학들에게 보여주셨다고. 거기다 이젠 "계엄령 떨어졌는데 밖으로 나다니고 설치니까 총맞지"라며 5·18 민주영령을 깡그리 폭도로 싸잡아 발언.

난 아니라고 봐

正道경영·초우량LG

LG
● 고객서비스/불공정시래신고
● TEL : 080-023-5151(수신자부담)
(02)3777-6088
FAX : (02)3777-6099

호남정유는
세계최대로 만족하기 보다는
세계최고를 원합니다.



● 엔진보호 휘발유 테크론 출시 및 스타주유소와 고객서비스팀 운영
● 세계 최초로 재생가능소재의 윤활유 통기 사용 및 해양오염 방제선 운영
● 호유배구단, 푸른문화예술축제 및 신장 기금과 월드컵 유치성금 기탁
● 종합에너지, 석유화학산업 PACESETTER 및 '95 공정거래 우수업체로 선정

21세기 세계 초우량기업을 목표로—
엔진보호 휘발유 테크론으로
휘발유의 브랜드 시대를 연 호남정유—
그 이름에 책임지는 자세로
호남정유는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기업으로,
공해방지에 앞장서는 환경기업으로,
문화, 체육, 사회사업에 힘쓰는 국민기업으로,
중화학 공업을 이끌어가는 국가기업으로,
우리사회 곳곳에서
늘 풍요로운 삶의 에너지를 창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남정유주식회사

용인, 확대운위 열려

컴퓨터 배분 · 체전일정 공유

△컴퓨터배분 · 사물함 운영 △왕산체전 일정 △광대학생회 건설 등의 안건으로 용인캠퍼스 총학생회는 지난 5일(화) 확대운영회의를 개최했다.

현재 각과별로 배분된 1천개의 사물함은 각과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대학단국의 재정문제로 9월말에서 10월초에 선별지급될 586컴퓨터에 대해 학생회는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지급돼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하나됨을 확인하는 대단결의 장'이 될 '95 왕산체전은 오는 25일(월)부터 28일(목)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오늘부터 14일(목)까지 과 · 개인별로 하면된다.

내년에 정보산업공과대학으로 분리되는 공대학생회건설을 위한 준비위원회(곤준위)가 오는 10일 첫째주에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자연대 학생회장 이재규(화학 · 3)군은 "공준위는 공대학생회 건설을 주목적으로 한다"라며 "대중적인 학생회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시키는데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용인총학, 영어특강 실시

오는 18일부터

용인캠퍼스 총학생회는 오는 18일(월)부터 영어특강을 개설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과목	시간		장소	강사	수강료
아카데미 Toeic	A	07:50-09:00	기숙사 세미나	김재연	3만원
	B	19:10-20:20	신강의동 208	이인규	3만원
아카데미 Toefl	17:40-18:50		신강의동 208	이인규	2만5천원
안박사 Toeic	19:10-20:20		신강의동 205	김공제	3만원
이재욱 Toefl	17:40-19:00 (월, 수, 목, 금)		신강의동 205	김명규	2만5천원
Voca 22000 +GRE	17:30-18:30 (월, 화, 수, 목)		신강의동 206	서형곤	2만5천원
영어순해	18:30-21:00 (월·화 140분간)		신강의동 206	서형곤	2만5천원
시사Toefl	06:40-09:00 (수, 목)		신강의동 206	서형곤	2만5천원

본교, 신규교수 25명 임용

15대 1의 경쟁률 보여

본교는 25명의 신임교수를 최종적으로 확정임용했다. 이번 신규임용자원자는 총1백6명으로 대략 1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각 교수의 명단과 약력은 다음과 같다.

△윤석만(불어과) 프랑스 파리4대학졸, 불어학전공, 언어학박사

△맹주억(중국어과) 본교졸, 중어학전공, 문학박사

△권순만(행정학과) Univ. of Pennsylvania졸, 정책학전공, 정책학박사

△최 영(신문방송학과) Univ. of New York at Buffalo졸, 뉴미디어전공, 신문방송학박사

△노택선(경제학과) Univ. of Illinois졸, 경제사전공, 경제학박사

△노명환(사학과) Univ. Gesamthochschule ESSN졸, 유럽현대사전공, 문학박사

△장태상(아프리카어과) Univ. of London졸, 아프리카문학전공, 이문학박사

△최영수(수학과) Univ. of Chicago졸, 응용수학전공, 이학박사

△이규호(환경학과) Univ. of Southern California졸, 환경생물학전공, 이학박사

△서경희(실용영어부) Univ. of California Los Angeles졸 TESL전공, 응용언어학박사

△차경애(실용영어부) Univ of Texas Austinwh로 TEFL전공, 응용언어학박사

△Brigitte Ledener(독일어과) Univ. of Wien졸, 연극학전공, 박사

△Maraarita Lannza Jimenez(서반아어과) Univ. de Lleida졸, 서문학전공, 석사

△Laura Besazza(이태리어과) Univ. of Venezia졸, 이문학박사, 석사

△Antonio Filipe La Pas de Gusonao Yasco(포르투갈어과) Univerrsidade Nova de Lisbea졸, 포문학전공, 석사

△Jozef Stefanik(체코어과) Univ. of Lomenius졸, 슬로바키아어학전공, 박사

△Kovacs, Sandor Barnaabas(헝가리어과) Univ. of Jozef Attila졸, 헝가리문학전공, 석사

△Z, Branko Ljatie(유고어과) Univ. of Belgrade 졸, 경제학전공, 박사

△Svetozar Koljevtc(유고어과) Univ. of Zagreb졸, 유고문학전공, 박사

△허도명(중국어과) 북단대졸, 중문학전공, 석사

△동설령(중국어과) 남경대졸, 중문학전공, 석사

△여문조(중국어과) 국립대만사범대졸, 중문학전공, 석사

△타지마 마스미(일본어과) 동경대졸, 비교문학전공, 석사

△Prs. Sunars, OM. Ham(마인어과) Gadjah Mada Univ. 마인문학전공, 석사

△Christine Kienlen(통역대학원) Univ. of Paris Ⅲ졸, 통역학(법학)전공, 석사

〈윤석만〉

〈맹주억〉

〈권순만〉

〈최 영〉

〈노택선〉

〈노명환〉

〈장태상〉

〈최영수〉

〈이규호〉

〈서경희〉

〈차경애〉

동구어대, 단대분리 요구

서명운동·뺏지달기 등 본격화

지난 7년간 단대분리를 요구하고 있는 동구어대 학생회는 지난 7일(목) 대학당국에서 단대분리와 5개과의 전망에 관한 질의서를 발송했다. 서강학대의 비대함에서 비롯되는 학사행정의 비효율성, 동구 5개과(폴란드어 · 헝가리어 · 유고어 · 체코어 · 루마니아어)의 대외 인식도부족으로 인한 취업난을 극복하기 위한 동구어대 학생회의 움직임은 이번주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또한 학생회측은 대학당국이 이에 대한 입장을 오는 14일(목)까지 뚜렷히 하지 않을 경우 무력행사도 불사할 것으로 보여 대학당국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동구어대 학생회는 단대분리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설문조사와 서명운동, 뺏지달기 등의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동구어대 단대분리에 대한 89년이후의 학교측 입장은 "학내 구성원의 의지와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동구어대 학생회장 이주남(체코어 4)군은 "그러나 대학당국은 그간 동구어대 구성원의 의사를 수렴하는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라며 "빠른 시일내에 학생 · 교수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동구어대 단대분리에 대해 용인캠퍼스 교무처 한 관계자는 본보(4월 4일자)에서 "현재 동구어권의 현실을 비추어 불때 이를 실시했을시 취직상의 문제가 따른다"라며 "지금 당장 단대분리는 불가능하고 계열이나 학부모임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힌바 있다. 이와 관련, 이주남군은 "대학당국은 왜 단대분리를 해서는 안되는지에 대한 뚜렷한 주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질의서의 내용이다.

1. 동구 5개과의 구성원들의 대다수가 열악한 환경과 그 지역적, 학문적 특성상 동구어대 단대분리로 새로운 전망을 세우고 진행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학당국의 의견.

2. 단대분리에 대한 학생, 교수 의견 수렴의 제도적 보장과 이에 대한 계획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3. 동유럽 5개과의 발전전망에 대한 대학당국의 의견

4. 학교발전과 동구어대 문제를 현재 연구하는 부서는 어느 곳이고 연구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없다면 대학당국의 공식적인 사과와 해명을 요구하며 그에 대한 대안.

이사람

□모의유엔 총회 납축대표로 참가한 여만철씨 딸 금주양을 만나

"유엔총회를 하기 전까지는 국보법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다"

"외대에 들어서니 임수경양의 그림이 낯익었어요"라고 말문을 꺼내는 여금주(중대 유아교육과 1)양. 간간히 섞어쓰는 서투른 서울말씨가 아직은 낯설기만 한 1년반의 남한생활을 말해준다.

처음 모의 UN총회의 남측 대표를 맡으라는 제의를 받았을때는 많이 망설였으나 남한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에 결정하게 됐다고 한다.

여양은 남한의 특성에 대해 '자유'라는 한 단어로 일축한다. 그러나 "UN총회를 하기전까지는 남한의 국보법이나 양심수 등에 대해 전혀 몰랐다"며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이라면 당연히 개정되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조심스레 말했다.

남한에 와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보다도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일이었다는 그녀는 "남한의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반면 너무도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것 같아요"라고 말한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은 정이 많고 소박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요"라고 함흥에서의 얘기를 꺼내던 그녀는 끝내 눈물을 글썽였다.

귀순 직후 삼성 등을 견학하면서 경제적인 면에 놀라기도 했지만 시간이 흐르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런 걸 바란게 아니었는데"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한다. 그녀는 통일에 대해서도 자신의 주장을 차분하지만 강하게 밝혔다. 그가 생각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서로가 너무도 모른다는 점이다. '돌이장군'이라는 만화영화에 대해 들었다는 그녀는 상대방에 대해 왜곡 · 전달하는 것에 대해 "청년들의 통일의 열의는 남북이 같다고 봅니다. 단지 뭇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통일을 정치에 이용해서는 안되죠"라며 "통일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서로 자주 만나야 하는데 ~"라고 다시 한번 고향을 그리워했다.

북한에서처럼 유치원교사를 계속하고자 중대에 입학한 그녀의 소망은 "하루 빨리 북한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총회를 마치고 열심히 수업에 임하고 싶다"며 "그렇지만 기회가 되면 다시 참가하고 싶은 행사입니다"라고 남한에 대해 새로운 것을 알게 해 준 모의UN준비위원회에 감사를 표했다.

단 신

AD-LINE, 광고대회에서 2등

서울캠퍼스 광고동아리 AD-LINE이 LG전자가 주최한 대학생광고대회에서 2등을 차지했다. 대학생의 창의력을 발굴한다는 취지로 열린 이 대회에서 AD-LINE은 창설 5년만에 공식대회에서 수상을 했다. 동아리 회장인 김승연(동양 · 터어키어 4)군은 "동아리방이 없는 열악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성과라 무척 기쁘다"라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간부수련회 열려

1학기 사업보고 2학기 학자일정 공유, 간부들간의 화합을 다지기 위한 서울 용인캠퍼스 간부수련회가 지난 21일(월)부터 23일(수)까지 열렸다.

약 2백여명의 각 단위 학생회 일꾼들의 참가로 진행된 이번 수련회는 지역학 · 서울과 용인간의 공동연대 등을 주제로 한 토론회와 체육대회 등도 진행됐다.

상대, 전교생 대상 책대여

지난 8월부터 상경대 학생회는 학생들에게 무료로 책을 빌려주고 있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며 하루에 두번씩 대여를 한다(12시- 1시, 4시- 5시) 현재 비치되어 있는 책은 사회과학서적 40여권을 포함, 약 1백50여권에 이른다. 학생회는 앞으로 희망도서 신청을 받아 책을 차츰 늘릴 예정이다.

학생회강화와 학회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 무역학과 과회장인 김창수(3)군은 "집행부 장학금으로 나오는 돈을 학생들을 위해 좀 더 보탠있게 써보자는 데서 시작했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모스크바동문, 원서 보내옴

직장인 및 유학생을 포함한 1백여명의 모스크바 동문들이 본교에 3백여권의 원서를 보내왔다. 지난번 외대인의 날 등을 통해서 본 외대발전의 소식을 듣고 후배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던 중 원서구입의 어려움을 듣고 이같은 일을 추진했다는 모스크바 외대 총동문회장 김수철씨는 "외대가 21세기를 맞아 새로이 도약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는 바램도 밝혔다.

아랍어과경시대회 열릴 예정

아랍어과 30주년을 기념하는 전국어랍어경시대회가 아랍어과 주최로 오는 26일(화) 대학원에서 개최된다. 아랍어과 예술제 기간에 치뤄질 이 대회는 아랍어과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가능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주제로 열린다. 시상내역은 1등은 20만원, 2등은 10만원, 3등은 5만원과 함께 각각에게 상장이 수여된다.

사범대, 열린학교 개최

닫힌 공간으로서의 학교를 거부하는 예비교사의 움직일, 열린학교가 사범대 학생회 주최로 방학기간이던 지난 8월 7일(월)부터 5일간 열렸다. 서울지역 7개 사범대가 주축이 되어 벌인 열린학교에서 본교 사범대는 이문 휘경동의 중학생 60명을 대상으로 열린학교에는 국어 · 영어 · 역사와 말하기 · 글쓰기 등의 과목을 개설해놓고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열린학교 교장을 맡았던 사범대 학생회장 박호진(독교과 · 4)군은 "학생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와 일선 학교의 창의력 교육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게 된 좋은 기회였다"라고 평가를 내렸다.

생협, 하계어학연수

생활협동조합(생협)은 제 7회 하계어학연수를 지난 7월 1일(토)부터 5주동안 용인캠퍼스 교정에서 진행했다.

2백 4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이번 어학연수에서는 회화, 듣기, 작문 등의 강좌가 개설됐다. 또한 체육대회, 국제인의 밤, 하계발표회 및 여름축제 등 다양한 행사도 진행돼 참가자들의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가 됐다.

제15회 전국대학생외국어(영어,불어,독어,중국어,일어,서반아어)학력경시대회

1.목적

1)세계화, 개방화의 무한 경쟁시대를 맞아 전국대학생을 대상으로 외국어 학력경시대회를 통하여 외국어에 유능한 인재를 발굴함으로써 대학교육의 국제 경쟁력 재고를 도모한다.

2)대학생의 학력수준을 평가함으로써 외국어교육의 질적 향상과 외국어교육의 학습의욕을 고취한다.

3)경쟁적 학술활동을 통하여 대학인의 국제적 안목을 넓히고 나아가 대학내 외국어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다.

2.경시과목 및 내용

1)경시과목: 영어, 불어, 독어, 중국어, 일어, 서반아어 (택1)

2)경시내용: 수필-창의력, 문장표현력의 평가
번역-외국어의 국문번역, 국문의 외국어 번역능력 평가
회화-외국어 청취력, 구사력의 평가

3)배점비율: 수필-30%, 번역-30%, 회화-40%(청취력 20%, 구사력-20%)

3.경시방법

1)참가학생은 응시과목의 4분야(수필, 번역, 청취력, 구사력)에 걸쳐 모두 평가 받아야 함.

2)수필은 주어진 제목에 따라 해당 외국어로 번역함(제한시간 60분)

3)번역은 외국어를 국문으로, 국문을 외국어로 번역함(제한시간 60분)

4)회화는 회화Ⅰ(청취력), 회화Ⅱ(구사력)로 나누어 평가하며, 청취력은 녹음 또는 녹화테이프로, 회화Ⅱ는 심사위원 3인1조(내국인, 외국인포함)의 개별 인터뷰로 심사함.

4.출제 및 심사위원 구성

출제 및 심사위원은 전국 대학(교) 해당 외국어 학과의 저명한 교수 및 외국인으로 함.

5.참가자격

1)전국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소속대학(교) 총(학)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2)본 경시대회에서 수상경력이 있는 응시자는 과거와 동일한 상 또는 하위급의 수상대상에서 제외함.

3)경시과목과 동일한 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1년이상 체재했거나, 또는 해외 교육기관에서 경시과목과 동일한 언어를 1년이상 수학하고 귀국한 학생은 참가할 수 없음.

6.대회일시: 1995. 10. 28(토) 09:00~17:00

7.대회장소: 한국외국어대학교

8.시상 및 발표

1)심사발표: ① 일시: 1995.11.10(금) 12:00
② 장소: 한국외국어대학교 정문 게시판
③ 각 대학(교)으로 개별 통지

2)시상내용: 최우수상 1명(각 과목별): 교육부장관상 및 부상 1,000,000원
우 수 상 2명(각 과목별):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상 및 부상 500,000원
장 려 상 3명(각 과목별):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상 및 부상 200,000원

3)시상일시: 1995. 11.17(금) 오전 11시

4)시상장소: 한국외국어대학교

9.우수 입상자 특전: 과목별 우수자 각 1명에게 대한한공이 제공하는 국제항공 왕복 탑승권을 수여함
① 영어-뉴욕 또는 런던 ② 불어-파리 ③ 독어-베를린
④ 일어-동경 ⑤ 중국어-북경 ⑥ 서반아어-마드리드

10.참가신청서 접수

1)접수기간: 1995. 10. 2(월)~10. 16(월)

2)구비서류: 참가신청서 및 총(학)장 추천서 1통(소정양식)
사진 2매(반명함판)

3)접 수 처: 130-7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한국외국어대학교 사범대학 교학과
전화 (02)965-7047, 961-4083, FAX (02)960-7898

4)접수방법: 서울, 경기지역은 가급적 직접 접수하기 바라며,
학교별 단위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함.
우편접수는 10.26(월)까지 도착분에 한함.

5)참가신청서 양식은 소속대학(교) 학생처(과), 해당 학과장실에 비치되어 있으며 기타사항은 본 대학교 사범대 교학과로 문의하기 바람.

주 최 한국외국어대학교 후 원 교 육 부 협 찬 대 한 항 공

□ 가을편지

"나 아닌 것들에 대한 아낌과 사랑의 부딪힘은 변치 않았으면…"

새학기가 시작되는 캠퍼스가 그리워진 게 뭐 그리 새삼스럽 일이라고. 하지만 오늘은 무슨 말이든 꼭 전하고 싶은 생각에 몇 자 적어봅니다. 일상을 틀고 가음이 다가왔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은 살아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자취방 작은 부엌에 쪼그리고 앉아 빨래를 하다가 문득 귀뚜라미 소리를 들었습니다. 출근길마다 이른어른 소담하게 푸른 대추열매가 얼마나 예쁜 모습인지. 이제 물들음을 준비해야 할 은행잎의 숨소리도 남다르게 느껴집니다. 멀어져가는 하늘, 그 속에 속암속암대는 내 그리움들이 9월 언제쯤 가을비로 세상에 뿌려지겠지요.

열정으로 하루가 지났던 대학생활, 배고픔보다는 술이 고팠고, 열띤 토론과 행사준비로 밤이 짧기만 했었던, 무엇보다도 의문과 관심을 쫓아 펼쳐내기던 그 많은 책들과 문학 예술에 대한 감동들, 함께했던 그 믿음들이 참으로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은, 여기 사회라는 또다른 장에 있기 때문일까요. 저항정신과 신선한 창조정신 그것들은 그 시절을 꾸려나가게 했던 생명력이었습니다.

90년대가 중반에 접어들고, 연일 21세기를 이야기 하지만, 영원히 변치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딪힘이라는 생각 해봅니다. 항상 모순이 들끓는 이 세상에 놓여진 나와 세계에 대한 의문을 진지한 마음으로 풀어보고자 하는 노력, 조건과 상황을 뚫고 나가려는 도전정신, 지성과 앎에 대한 진지하고 실천적인 이해, 그리고 나 아닌 것들에 대한 아낌과 사랑의 부딪힘들이 그것입니다.

이제 가을편지, 가을선물로 후배들에게 띄웁니다.

집이란, 돌아가 편히 쉬는 곳이 아니라
단지 떠나야 할 때 구두끈을 조여매는 곳
떠나지 않고는 돌아올 수 없으니
정작 돌아오려거든 늘 떠나야 한다
나 아닌 것들을 위해, 아니 나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는 한번도 목숨을 걸고 살아 본 적 없었다
다가오는 겨울의 발자국소리만큼 일렁대는
유리창 앞에서 아아, 흔들리는 마음 앞에서

갈탄난로를 피우지 않았다고 투덜대는 것보다는
세상은 내 한 몸이라도 들이밀어 바람구멍을 막아야 하는 곳
너를 위해 버려도 좋은 내 몸뚱아리 식지 않았으니
아직은 집으로 돌아갈 때가 아니다
내가 불러야 할 노래는 끝나지 않았으니
아직은 집으로 돌아갈 때가 아니다

- 안도현 '나에게 보내는 노래' 중에서 -

1995년 9월 1일

황 자 혜 〈중국어과 87학번〉

□ 여행기 - 신밧드와 함께 떠난 페르시아

양탄자의 나라 '페르시아' 문화의 벅찬 기쁨

신비로운 페르시아 음악에 맞추어 검은 베일로 얼굴을 가린채 요염히 춤추는 무희들, 흰 터번을 두른 페르시아 상인들이 온갖 신비로운 물건을 가득 실은 낙타를 이끌며 넓은 시장터를 가득 메운 장관!

이란의 국영항공기 '호마항공'의 기내에서 본 스튜어디어스의 '루싸리'라는 검은 천을 얼굴에 두른 모습부터가 새로운 문명권에 대한 충민된 호기심을 한껏 자극했다. 처음 테헤란 공항에 도착하여 그곳 문화양식의 특징을 가장 크게 느낀 곳은 화장실이다. 그곳에선 남성용 소변기를 찾아 볼 수 없고 모두 양변기로 되어 있다. 특히 재미있는 것은 대변시 화장지를 사용하는 대신에 왼손과 '오르토베'라는 길다란 물 호스를 사용하여 뒷처리(?)를 한다는 것이다. 화장지를 미리 준비해 갔지만 그곳에 있으면서 그들의 방식대로 해 보았는데 오히려 깨끗하고 상쾌함까지 느낄 수 있었다. 시설이 좋은 호텔에서는 '비데'를 사용한다. 그러한 문화적 특성때문에 작은 공원의 공중화장실까지도 수도시설이 잘 설비되어 있고 비누 또한 항시 갖추어져 있었다.

또 하나 나를 놀라게 했던 것은 그들 문화의 금기사항중 하나가 '금주'였기 때문에 알콜이 함유된 그 어떤 것도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탐방기간 중 식사를 하다가 안내원이 이란식 맥주가 있다는 말에 반은 의아심에 반은 기대감에 주문을 했으나 알콜을 완전히 제거하고 보릿물에 설탕을 가미한 미적지근한 맛의 '얼주'라고 불리는 이란식 맥주는 나의 씁슬한 입맛만 다시게 할 뿐이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륵'이라 불리는 그곳 사람들이 우유처럼 마시는 묽은 요거트는 여지없이 막걸리 맛이었다. 물론 알콜성분은 완전히 제거되었지만 술 좋아하는 몇몇 사람들에게는 위안이 되었다. 술을 금기하는 대신 '차'문화는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다. 사람이 모이는 곳 어디라도 '체이'(chai)라 불리는 홍차를 마실 수 있는 찻집이 있고, 가족들과 함께 여행하는 사람들은 보온병에 체이를 가지고 다닌다.

'루싸리'를 두른 스튜어디스, 화장지 대신 물 호스로 뒷처리를 하는 화장실, 아름다운 양탄자는 페르시아의 새로운 문화에 대한 호기심을 한껏 자극했다.

기후는 떠나기 전의 예상대로 40℃를 오르내리는 기온이었지만 아주 건조해 그늘에 있으면 체감온도는 그리 높지 않았다. 건조한 기후 탓에 일행 모두 콧속이 헐고 피부도 타서 쓰라려웠다. 혹 이 글을 읽은 사람 중에 이란을 여행한 사람이 있다면 '로션'을 준비해 가라고 권하고 싶다. 기후적으로 그리 많은 비가 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사계절이 존재하고 세계에서 손꼽히는 스키장이 있다고 하니 얼마나 그곳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는가를 절감할 수 있었다.

페르시아의 실생활을 피부로 접할 수 있는 시장을 방문하곤 했다. 과연 예전에 명성을 느낄 만큼 거대한 시장터에는 다양한 물건들이 쌓여 있었다. 특히 쌓여있는 각 양각색의 과일들은 나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피루제'라 불리는 그곳 고유의 산유빛 돌은 어릴적 동화책에서 보았던 자그맣고 아리따운 페리시아 공주의 맑은 눈망울을 보는 듯 했다. 양탄자의 나라답게 많은 상점들에서는 다양한 무늬와 색깔의 양탄자를 팔고 있었다. 양털, 실크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기하학적 무늬부터 전설속의 이야기까지 다양한 주제로 화려하게 짠 양탄자들은 구경하는 이방인의 정신을 혼미하게 할 만큼 아름다움을 발하고 있었다. 실크로 짠 아름다운 양탄자는 가장 값싼 것이 5백달러부터 있었는데 페르시아 처녀들이 어릴적 부터 익혀온 기술로 시집갈 때 까지 온갖 정성을 들여 양탄자를 완성하여 결혼비용을 충당한다고 한다.

밀려오는 고독감과 미래의 불안감, 설레임속에서 한땀한땀 온 정성을 다해 지문조차 지워져 버린 손끝으로 완성한 양탄자를 보며 그녀들의 고뇌와 체취가 온 가슴 가득히 전해왔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정찰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아서 외국인에게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바가지를 씌우려 한다는 것이다. 나의 경우에 마음에 드는 양탄자를 골라서 흥정을 하니 처음에는 무려 1백70달러를 달라고 하였다. 그곳의 안내인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 50달러에 살 수 있었는데 구입하고 나서도 약간의 미진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양탄자에 앉아서 공원이든 풀숲이든 혹길 한켠에서 '체이'(차)를 마시며 어느 누구와도 함께 어울려 선한 눈망울을 반짝이며 즐거워하는 그들. 이방인인 나의 마음속에도 그들의 행복감이 따스하게 느껴진다. 어느덧 물질문명과 서구주의 사고관에 빠져버린 인식의 한계를 실감하며,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 파란색의 환영이린 행복을 찾아 떠돌고 있는 나의 영혼에 부끄러움과 동시에 행복이린 그들의 모습을 작은 가슴 한구석에 담아 내 영혼은 벅찬 기쁨에 도취되어 버렸다.

권 오 승
〈서양 · 불어 3〉

□ 아나톨리 김의 자전에세이 - '초원, 내 푸른 영혼'

삶의 자취와 문학세계, 러시아 민중의 삶 그려

한 인간의 삶을 한 폭의 그림에 비유할 수 있다면, 그는 분명히 아름답고 정신적으로 윤택한 인생을 산 사람일 것이다. 아나톨리 김의 자전에세이 '초원, 내 푸른 영혼'(번역 김현택 노어과 교수)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산 한 작가의 인생 고백이다. 그가 그려내는 마음 속의 풍경화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소비에트 체제 속에서 양심적으로 살아온 한 고독한 작가의 내면세계와 그가 살아온 어렵기만 했던 삶의 행로에 동참하게 된다.

저자 아나톨리 김은 '묘꼬의 찔레꽃', '푸른 섬', '다람쥐', '켄타우리의 마을' 등으로 러시아 뿐만 아니라, 서방 세계까지 널리 알려진 한국계 러시아 작가이다. 서정적인 분위기와 아름다운 문체로써 20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소외된 인간들의 내면세계를 그려내는 그의 작품들은 세계의 많은 독자들로 부터 사랑받고 있다.

그는 자신이 살아온 삶의 발자취와 작가로서의 예술관과 삶의 철학을 한 폭의 그림처럼 그려내고 있다. 그가 삶 속에서 느꼈던 고독의 시초는 자신이 태어난 카자흐스탄에서였다. 남의 땅에 사는 이민족의 후예로서 느꼈던 소외감과 비애를 그는 '죄의식'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그의 고독은 카자흐스탄의 황색구릉의 이미지와 함께 어린시절부터 잉태되었던 것이다. 카자흐스탄을 떠나 캄차카와 사할린에서 보냈던 어린시절과 모스크바에서 노동자로서, 가난한 미술학도로서 겪어던 어려운 생활들, 그리고 수용소 경비병을 했던 군복무 시절은 그에게 인생의 괴로움과 인간의 잔혹함을 경험케 했다. 그러나, 그는 인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결코 버리지 않았다. 작가로서 자신의 삶을 순수하게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인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었다고 저자는 고백한다. 미술공부를 하던 그가 글을 쓰는 작가가 되기로 결심하게된 동기를 보이지 않는 운명의 힘으로 돌리고 있다. 작가로서의 소명의식과 함께 그가 카자흐스탄과 캄차카, 그리고 사할린에서 자연과 더불어 교감하며 지냈던 어린 시절의 기억들은 그의 문학세계를 풍요롭게 만드는 또 하나의 근원이었다.

그의 삶의 이야기는 또한 소비에트 사회 속에서 러시아인들이 살아온 삶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사회주의 건설현장에 노동자로서 직접 참여하면서 겪었던 비참한 노동자의 삶과 군복무 시절 수용소 경비를 하면서 목격했던 강제 수용소의 잔악성은 그로 하여금 소비에트체제에 대한 심한 회의를 갖게 하였다. 그는 부를 축적하는 특권층들의 비리와 그로 인한 소외계층의 절망감과 도덕적 타락, 문란한 성 풍속도 등 과거 소비에트 사회가 안고 있던 고질적인 병폐들을 고발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러한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인간애를 잃지 않고 살려고 노력했던 선량한 민중들이 있었음을 잊지 않는다. 과거의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집단체면에서 러시아인들이 깨어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방관처럼 남아있는 관료주의의 병폐와 민중들의 허탈감을 말하는 저자의 목소리는 우울하기만 하다.

앞에서 밝혔듯이, 아나톨리 김은 러시아 작가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삶을 러시아에서 보내고 러시아어로 글을 쓰면서도, 자신의 영혼은 항상 조국을 그리워하고 있었다고 고백한다. 그는 한국을 영적 어머니로 생각하고, 한국적 세계에 속하는 인간의 영혼의 세계를 그려냈다. 그의 작품 속에 자주 등장하는 '고독'의 모티브는 아마도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어머니가 한국인으로서 낯선 러시아 땅에서 겪어야 했던 고독한 삶에서 유전된 것일 것이다. 기억 속에 푸른 색의 이미지로 간직된 어린 시절의 사랑리처럼, 저자에게 있어서 조국 한국은 푸른 꿈과 희망을 샘솟게 하는 영혼의 근원일 것이다. 그가 조국에서 자신의 자전에세이를 발간한 것은 그러한 점에서 더욱 더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안.용 호
〈대학원 노어과 석사과정〉

캠퍼스를 깨우는 자명종

파수대

개강으로 캠퍼스가 각과 풍물패의 연습으로 활기를 띠고 있다. 연습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풍물소리는 들뜬 개강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정유정 기자

제 54기 외대학보 수습기자모집

"직업으로 기자생활을 하고 있지만 지금의 치열함은 외대학보지자 시절만큼 뜨겁지 않죠. 멋있는 대학생활을 해보고 싶다고요? 망설이지 마십시오"

27기 김 당
(노어 · 79)
시사저널 특집기획부

"전 단호 외대학보기자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곤 한답니다. 참다운 기자가 되는법, 외대학보에서 찾아보세요"

27기 이인우
(신방 · 79)
한겨레 문화부 기자

"외대학보는 결코 잘난 사람들이 모여서 신문을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젊은이란 제 잘난게? 자기 의지 하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게 젊음 아닙니까? 용기있게 외대학보의 문을 두드립시요"

29기 문석진
(정외 · 81)
중앙일보사
월간중앙 기자

기자가 되고 싶습니까?

외대학보에서는 밝고 건강한 아직까지 새내기(?)
95학번 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모집부문: 일반(사회부 · 대학부 · 문화부)기자
사진기자
만화기자

올해부터는 외대학보 광고면을 이끌어갈 광고전문기자도 모집합니다.

전형방법: 19일(화)-자기소개서
20일(수)-면접
원서마감: 19일(화) 늦은 5시
원서배부처: 학생회관 2층 학생기자실
문 의: 961-4152, 4183

민족자주언론
외대학보

"혹 반복되는 일상생활에 빌써 대학생활에 대한 회의를 갖고 있진 않으십니까? 자기운명의 주인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자신이듯이 대학생활도 여러분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32기 정희상
(스페인 · 83)
시사저널 사회부

"글이라면 질색을 했죠. 그런데 이렇게 글쟁이가 되다니…이게 다 외대학보기자였던 까닭인게 맞나요"

43기 강민숙
(이란 · 90)
미디어크리아 스크립터

"대학생활의 시작은 바로 학보사에서였습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요"

49기 강민홍
(독어 · 93)
95년 2학기 현 편집장